



Smart choice Best care! 인하대병원

연중기획
암! 함께 이겨내요
암시리즈 4
위암

특별한 만남_ 위암 전문의
소화기내과 신용운 교수
외과 신석환 교수

의학정보 1
위암 이야기

의학정보 2
위암의 수술과 치료

국내 위암 발생률은 암중 1위, 암환자 10명당 2명은 위암
정기검진 및 식습관, 생활습관으로 위암 예방!!



JCI

World Best Safety, Global INHA

보건복지부
인증의료기관



봄날의 기도

- 정연복 · 시인 -

겨우내 쌓였던 잔설(殘雪) 녹아
졸졸 시냇물 흐르듯
지난날의 모든 미움과 설움
사르르 녹게 하소서

살랑살랑 불어오는
따스운 봄바람에
공공 단혔던 마음의 창
스르르 열리게 하소서

꽃눈 띄우는 실가지처럼
이 여린 가슴에도
연초록 사랑의 새순 하나
새록새록 돋게 하소서

창가에 맴도는
보드랍고 고운 햇살같이
내 마음도 그렇게
순하고 곱게 하소서

저 높푸른 하늘 향해
나의 아직은 키 작은 영혼
사뿐히
까치발 하게 하소서



2012. 03+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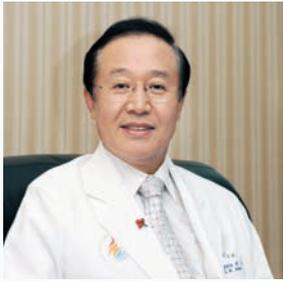
CONTENTS

Mar. Apr Vol. 92

- 02 행복을 전하는 글 봄날의 기도
- 04 월례조회사 소통과 혁신 마인드가 최우선

연중기획 **암! 함께 이겨내요** **암시리즈 4 위암**

- 06 특별한 만남 소화기내과 신용운 교수
- 09 외과 신석환 교수
- 12 의학정보 1 위암 이야기
- 14 의학정보 2 위암의 수술치료
- 16 환자수기 "나의 암 극복기"
- 18 건강책갈피 1 젊어지는 밥 먹기
- 20 건강책갈피 2 스마트폰과 눈건강
- 22 교육후기 2012년 신규직원 교육후기
- 24 글이 머무는 풍경 환자의 마음을 꼭 채우는 놀랍고 아름다운 일, 세 가지
- 27 사회복지 기금 모음 다시 봄이오면
- 28 희망천사 릴레이 인천탁주(소성주) 정규성 대표의 기부예찬
- 30 특목약물상담 건조시럽에 물을 섞은 후에는 반드시 냉장 보관해야
- 31 병원돌보기 변화!! 고객 감동에 한 걸음 더 다가가다~~
- 32 협력병원탐방 도화요양병원
- 33 병원소식 인하대병원소식 / 파랑새 소식
- 38 알립니다 언론보도 / 친절직원 소개 / Global Inha / 발전기금
무료공개강좌 / 암 진료시간표



의료원장 박승림

소통과 혁신 마인드가 최우선

사랑하는 교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을 희망의 새 계절이라고들 하는데, 새로운 각오와 희망이 넘치는 계절이 되길 바라며,
여러분 가정에도 새봄과 함께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교직원 여러분!

본인은 앞으로 2년간 여러분과 함께할 의료원의 책임경영을 이사 회로부터 위임받았습니다. 많이 부족한 저이지만, 교직원 여러분이 보내주신 믿음과 지원 덕분에, 이사회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신뢰를 보내주신 이사회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책임이 막중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의료원장직을 맡은 지난 2년을 되돌아보면 보람되고 의미 있는 일도 많았습니다. JCI인증, 진료환경개선, 장비투자 등 인프라 확충과 굵직굵직한 국책과제 수주 등으로 연구중심병원으로서의 위상 정립과 연구환경조성 등 준비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1월에 신관 건축 심의가 통과됐고, 3월 말에는 인허가가 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제 본 설계에 들어가고, 2016년 개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긍정적이고 보람된 일도 많았습니다만 아쉬운 점도 많았습니다. 성장과 수익성이 정체상태에 있고, 교직원 여러분의 복지 또한 만족스럽지 못했으며, 무엇보다 경영진이 여러분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소통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교직원 여러분

우리 병원은 현재 성장의 중차대한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서울 및 인근 지역 대형병원의 시설확장과 공격적인 홍보가 우리 병원의 경쟁력에 큰 우려를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신관신축과 더불어 제2의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각오와 함



게 변화와 도전이 필요합니다. 2020년 TOP 7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지난 1월 고객만족도와 교직원 설문조사를 하여 우리 구성원의 바람이 무엇인지 분석하였습니다. 결과는 한마디로 서비스 혁신과 소통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교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번 조직개편과 보직자 선임은 소통과 혁신마인드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 기회를 빌려, 지난 2년 동안 여러 면에서 노력해주신 전임 임원들께 감사드리며, 새로 보직을 받은 임원 분들께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직원 여러분

3월은 새 회계연도를 시작하는 달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녹록하지 않은 대내외 의료환경을 극복하고, 신관신축과 개원을 준비하는 중기계획이 시작되는 해로써 변화와 혁신이 크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일간지 1면 Asian Leadership conference 기사 제목에 “개혁은 누군가에게 고통, 안 하면 모두가 더 큰 고통”이라는 제목으로 게재되었는데, 제가 교직원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었기에 마음에 와 닿았으며,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올해의 업무계획은 신년사에서 밝힌 것처럼 의료질의 향상과 업무의 효율화, 그리고 함께하는 경영을 기본방침으로 7개의 중점과제와 7개의 서비스 혁신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7개의 중점과제는 의료 질 향상, 국제보건/연구과제 수주, 응급진료 시스템 혁신, 고객진료 편의확대, 손익구조합리화, 신관건축설계 및 운영전략수립, 인하국제의료센터 개원입니다. 그리고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고객에게 집중하자”는 서비스 슬로건과 함께 7개의 서비스 혁신과제를 특별히 추진합니다. 외래진료시간 준수, 입원환자 회진시간 준수, 사회봉사 8천시간 달성, 고객만족도 10% 향상, 수술검사설명 동영상 100%촬영, 진료의뢰 10% 향상, 퇴원환자 Happy Call 100% 실시입니다.

교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에게서 마음만 먹으면 해내고야 마는 자신감과 DNA가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을 모두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3월에는 신관신축 인허가 취득이 되고, 5월에는 2020년 중장기 발전전략이 발표되고, 6월에는 인하 국제의료센터가 개원됩니다. 또한, JCI 재 인증 Mock Survey도 시작됩니다. 이러한 계획들의 성취를 위하여, 우리 교직원 전부가 마음가짐을 재정비 해야 할 것입니다.

교직원 여러분

우리 병원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의 의

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가정환경, 재능, 외모 등 태어나면서 받은 조건에 결혼, 직업(직장) 등 살면서 선택하는 길이 합하여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 받은 조건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지만 직업(직장)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직업(직장)은 병원이고 병원의 존재 이유는 환자를 위해서입니다. 환자에게 치유의 기쁨과 희망을 줄 수 없다면, 병원은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중점과제나 서비스 목표를 실천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고객인 병원을 찾는 환자에게 최상의 높은 수준의 진료와 서비스를 제공하여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환자가 신뢰하는 병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병원도 신뢰와 차별화된 서비스가 없으면 생존이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일본사람 오구라 히로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프로는 뺄셈을 우선으로 한다

버릴 수 있는 것은 버리고 확실한 효과가 기대되는 한 두 개에 자원을 집중하는 것이 프로정신이며,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자금과 인력이 많아도 충당할 수 없다는 것. 즉,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병원도 새 병원을 준비하고 있지만, 집중과 선택이 우리병원에도 반드시 필요할 것이며, 이것이 진정한 프로 정신일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 기존의 안정된 품질, 보증을 시스템 안에서만 시도를 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창의성을 기대할 수 없고, 변화와 혁신, 개혁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우리 병원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더욱 넓게, 창의성을 가지고 혁신과 개혁의 마인드로 틀에서부터 밖으로 한 발짝 나아가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이제까지 살면서 내가 생각하는 것대에 맞춰서 상대방에 대한 평가와 비판을 하는 경우는 수없이 많았어도, 스스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냉철하게 반성해 보는 과정은 없이 「소통」을 말하고 있지 않았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모두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면서 진정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서비스 혁신 과제 수행에 적극 협력하여, 높은 수준의 신뢰받는 진료와 차별화된 서비스로 환자가 스스로 찾는 병원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3월 7일

인하대학교의료원장 박 승 립

소화기내과 신용운 교수

한국은 위암 발병률 1위, 위암은 조기진단과 예방원칙으로!!
더하기 말고, 빼기로 까칠한 ‘위’ 달래기

Profile_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연세대학교에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인하대병원 교육연구부장, 적정진료실장,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내과과장으로, 전문분야는 위암, 대장암, 위·대장질환이다.



어린 시절, 자신의 위가 좋지 않다 보니 자연스럽게 소화기 분야에 관심이 많았던 신용은 교수이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소화기내과 쪽으로 공부하게 되었고, 실제로 자신의 위 건강을 많이 끌어 올렸다고 한다. 뇌로 가는 신경이 가장 많은 만큼 예민한 위, 위암을 비롯한 위 건강을 위해서는 무엇을 더하기보다는 피하고 빼라고 신 교수는 강조한다.

위암 발병률 1위, 불치병 아니고 장기적 치료를

우리가 암에 걸릴 확률은 3명 중의 1명이고 특히 위암은 우리나라 발병률 1위이다. 이제 암에 걸린다는 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렇다고 불치병도 아니다.

“뜻밖에도 많은 사람이 꽤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편입니다. 인터넷의 힘(?) 이지요. 오히려 환자의 눈높이를 맞추기는 쉬울 때도 있어요. 병에 관한 지식을 알고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위암’이라는 진단명을 전달해야 하는 신 교수, 예전처럼 ‘본인은 나가 게세요.’라는 상투적인 방법을 사용하지는 않는다. 또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 사형선고를 받은 양 눈물을 보이는 경우는 사실 좀 드문 편이라고 한다. 이런 현상에 대해 신 교수는 이제 암이 불치병이 아니고 시간은 좀 걸리지만, 치료가 필요한 질환으로 마인드가 바뀌어 가는 것이라고 말한다.

어찌 보면 이러한 긍정적인 생각은 다행이지만 더 적극적으로 조기예방을 해야 한다는 또 한 번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신 교수이다.

“참 안타까워요. 큰돈 들이지 않고 나라에서 나오는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건강검진만 받아도 충분히 위암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2년에 1번씩만 하면 조기발견 할 수 있는데, 내일로 미루며 안 하는 경우를 보면 정말 아쉽죠.”

모든 암이 그렇듯 위암도 조기발견이 최우선이다. 조기발견, 예방은 국가적 낭비를 막을 수 있고 그 비용으로 더 많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며 국민 질병 암에 대한 예방을 힘주어 말한다. 이런 이유로 신 교수는 어떤 공개강좌든 빠뜨림 없이 조기검진, 조기발견을 강조한다.

조기진단은 멀리 보면 ‘참살이’의 의미

신 교수가 이렇게 조기진단을 강조하는 이유는 또 있다. 바로 ‘참살이’의 의미이다. 생물학적 수명이 길어진 지금, 더 길어질 앞으로의 미래. 불치병은 아니지만 남은 인생을 암을 관리만 하며 살아야 한다면 조금은 억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몰라서 못한다면 억울하지 않을까?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보면 분명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깨우쳐서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신 교수는 다 알고는 있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조기진단이라는 가장 좋은 방법을 정말 널리 알리고 싶다. 어떤 질병을 잘 치료하는지보다 더 중요한, 예방을 통한 웰빙적 삶으로 업그레이드시키고 싶다. 분명 몸으로 보내져 오는 ‘사인’을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 서울 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빠르고 편하게 가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은 간절함, 이것이 신 교수가 의사로 살아가는 이유이다.

신 교수는 의대 시절을 회상해 본다. 학생이지만 무의촌 진료를 열심히 다니던 시절 의사홍내(?)를 낼 수 있었고, 자신의 인술을 베풀 수 있음에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요즘 단돈 몇천 원의 진료료 ‘의술도 인술’이라는 표현에 어울리지 않는 그저 백화점식 서비스를 강조함에 가끔은 답답한 가슴을 쓸어내려야 한다.

미국 병원에 있을 당시 동료 의사가 앞으로 의료는 ‘서비스’로 간다고 말하면서, 환자의 생일에 편지, 사탕을 주는 의사에게 환자는 더 찾아온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자신은 말이 좀 짧은 편이라고 말하는 신 교수는, 차트를 보니 아들 또래의 환자라, ‘조심해라’라는 식의 말을 했더니 바로 그 환자는 ‘왜 반말이에요’라고 해서



고교동창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감성마을로 달려가 작가 이외수 씨를 만나다.
(이외수 씨 왼쪽이 김병후 박사, 그 옆이 신용운 교수)

순간 당황하며 아차 싶었다. 그 반말은 정말 무시의 반말은 아니었을 텐데 말이다. 이리고 보니 어느 측면에서 든 방어 진료를 해야 하고 이렇게 의사가 서비스 정신이 투철한(?) 직업관을 갖고 극존칭을 써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회의가 몰려 올 때면 참 힘든 하루가 된다.

물론 이런 아쉬움만 있는 것은 아니다. 다른 곳을 다니며 삶을 포기했던 위암 환자가 자신과 인연이 되어 서로 최선을 다해 합심하여 치료하고 극적으로 호전되는 삶을 바라볼 때의 신 교수 마음은 그야말로 하늘을 난다.

자전거 사랑, 식후 움직이기, 천천히 먹기!!

“저요? 예전 어머니의 음식을 좋아하죠. 된장찌개에 나물반찬 뭐 이런 것을 좋아하고, 주요 식단이 되죠. 아침은 꼭 먹습니다. 물론 이렇게 한식으로 간단하게 먹어요.”

인천지역 위암 환자의 든든한 지킴이가 되어주는 신 교수는 특별히 좋아하거나 건강을 위해서 먹는 음식은 없다. 무엇을 ‘더하기’ 보다는 과식하지 않기, 간식을 피하려고 노력한다. 빨리 먹거나 과식하는 것은 정말 위를 힘들게 하는 일이라고 강조한다.

신 교수는 보기와는 달리 꽤 운동을 즐기는 편이다. 식후는 가능하면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이기, 헬스는 1주일에 3번 정도, 주말이면 또 자전거 사랑으로 이어진다.

신 교수의 자전거 사랑 멤버는 아줌마들의 뽀통령 김병후 박사(신경정신과 전문의), 휴보 아빠 오준호 박사(KAIST)를 비롯하여 5명의 대광고등학교 동창들이 함께한다. 지난주에는 청계사를 다녀왔었다.

“다 고만고만 하죠? ‘한강을 사랑하는 모임’이라 하여 일명 ‘한사모’라고 하는데, 좀 멀리 간다 싶으면 편도만 하고 전철을 이용하여 돌아올 때도 있죠. 나이가 예전 같지는 않아요.”

자전거에 말썹이 생기면 푹푹딱딱 수리하는 친구, 정신적 상담을 잘 들어주는 친구, 건강 문제를 상담하는 친구..... 언제 만나도 좋은 친구들과 자전거를 타니 건강은 두 배가 된다.

뭔가를 많이 벌이고 움직이고 화려하지 않을 것 같은 신용운 교수이다. 그러나 그에게 반전은 꽤 섹시한(?) 의상을 입어야 하는 자전거를 비롯한 훨씬 동적인 움직임이 있다는 사실이다. 또 인간의 삶의 본질적 접근 차원에서 ‘참살이’를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런 그가 오늘도 전공의에게 잊지 않는 당부가 있다. 반드시 자신의 눈으로 환자의 얼굴을 보고 잘 자고, 잘 먹고, 배변은 잘했는지를 살펴라 라는 것이다. 이 3가지의 기본과 원칙이면 어떤 병도 무서울 것이 없다.

인하대병원 내과 과장이라는 직책을 또 하나 맡게 된 신 교수는 마음이 더 바쁘다. 많은 두려움에 떨고 있을 환자들을 깨우치는 일에 주력해야 하니 말이다. 자전거로 분명 단련되었을 총총히 사라지는 신 교수의 두 다리는 지 침 없이 인하대병원을 걷고 있으리라.



외과 신석환 교수

조기위암, 노령화에 따른 맞춤형 수술시대
한국 위암 수술은 세계 최고,
그러나 고전적 치료가 우선!!

Profile_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대한노인병학회 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전문분야는 소화기외과, 위암이다.

최근 위암이 뜨고 있다.

남자의 자격의 가수 김태원, 아나운서 이재용, 만화가 이현세까지 위암 조기진단을 받고 수술하였다. 지금은 모두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어, 위암은 조기진단만 하면 개복 수술을 하지 않고도 완치되는 질환으로 인식된 셈이다. 가수 김태원은 위를 절제하지 않고 위내시경으로 수술(ESD)을 받았는데, 일명 '김태원 수술'로 통하기도 한다. 고령 위암 환자의 복강경 수술은 안전하면서도 좋은 예후를 보이고 있어 권장할 만한 수술이다. 인하대병원 신석환 교수는 위암의 외과적 수술은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고 전한다.



몇 년 전 미국 의대 교수의 모친이 우리나라에서 위암 수술을 받아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 더구나 그는 중앙 수술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였는데 가족의 수술을 위해 한국을 선택한 것은 우리나라의 위암 수술 경험이 풍부한 의료진이 많고, 수술 후 생존율이 가장 높기 때문일 것이라는 이유라고 한다. 이렇듯 우리나라 위암 수술은 세계 최고이고 한국에서는 위암의 달인이라는 말을 그대로 입증해 주는 일화였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위암에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따라온 타이틀이기도 하다.

인천지역에는 위암 수술의 세계적 권위자로 유명했던 고 김진복 교수의 지시(?)로 인하대병원과 인연을 맺고, 위암 수술을 전문으로 집도 하는 외과 의사 신석환 교수가 든든하게 버티고 있다.

‘보고, 듣고, 만지고’의 옛날식 치료 강조

최첨단으로 발전해 가는 의료 현장에서 그 혜택은 백배 활용하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손 진료’라고 신 교수는 강조한다.

위암은 우리나라에 특별히 많은 질병의 하나다.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이야기되지만 특유의 짠 음식 섭취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또 ‘위’는 특성상 심리, 뇌의 영향을 받는 감정지배를 받는 장기이기도 하다. 이런 맥락에서 신 교수는 환자를 볼 때 얼굴을 보고, 만져보고, 들어보라고 강조한다.

첨단 기계에 의뢰된 각종 검사지만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직접 환자의 얼굴을 한 번 더 보고 판단하는 옛날식 진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어떤 데이터보다 환자의 얼굴을 한 번 보는 것만큼 중요한 치료는 없다는 것이 신 교수의 생각이다.

이런 원칙을 고수하는 신 교수는 자신은 수술장에서 별로 인기가 없는 의사라고 말한다.

“언제가 수술장에서 인기투표를 했나 봐요. 제가 순위에 들지는 않았더라고요. 요즘은 아주 까다롭게 하지는 않아요. 화도 내지 않고, 많이 즐겼지요.”

수술 전 과정을 좀 까다롭게 하는 편이었다고 말하는 신 교수는 수술장에서 마음의 안정을 위해 스스로 기분이 상하지 않게, 참는 법이 이제 터득되기도 했단다.

신 교수가 생각하는 수술은 100% 안전한 것이 아니고 인위적으로 심한 상처를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탄탄한 준비와 철저한 집중력, 그리고 수술 후의 완벽한 마무리로 끝나면 되는데 이것은 아주 간단하지만, 꼭 지켜야 하는 원칙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노인 위암 환자의 안전한 수술을 위한 집념

현대 의학기술의 발달로 노령화 사회로 접어든 요즘 신 교수의 관심은 위암 수술의 환자 대상 역시 예외가 아니다. 그래서 노인 환자를 위한 안전한 위암 수술에 신 교수는 관심이 많다.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신 경우는 호흡기가 취약한 편이죠. 수술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며칠이 걸린다 하더라도 호흡연습을 많이 한 후 스케줄을 잡죠. 수술이 며칠 미루어진다고 해서 암 자체가 크게 위험할 것은 없죠. 안전한 수술이 더 먼저입니다.”

노령화되는 사회 현상을 그대로 인정하며 그들의 활력적인 삶의 ‘질’을 충분히 배려하고 하나의 계층으로 충분히 이해하며 서툰 손안에 조그만 칼 하나로 생물학적 생명 연장에만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신 교수이다.

사실 그래서 또 신 교수의 먼 훗날 바람이 있다면 안전한 노인의 위암 수술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이다.

직업병으로 생긴 작고 두툼한 손으로 위암 환자에게 희망을

신 교수가 외과의사의 길을 선택한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선택으로 기억한다. 의대 시절 실습을 둘 때 외과 쪽에 유난히 가벼운 마음이 느껴졌다. 그리고 보니 해부학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고 피를 봐도 걱정되지 않았다. 분명 멈출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외과의사인 신 교수의 손은 뜻밖에 작고 하얗다.

“작지만 손등 쪽은 꽤 두껍죠? 수술 기구를 많이 만지다 보니 이것 또한 직업 때문에 생긴 거죠. 대부분 외과의사들의 손은 두툼합니다.”

그랬다. 근육 발달형의 두툼한 그의 작은 손에서 위암 환자들은 새로운 생명의 문을 연다. 그들을 바라보는 마음은 그야말로 천직이라는 보람으로 가득 찬다.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을 묻자 신 교수는 술자리도 약간, 골프도 가끔 즐긴다고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강조하는 것은 병원에서의 규칙적인(?) 활동이라고.....

출퇴근, 의대건물과 병원을 몇 번이고 오가는 걸기, 규칙적인 식사 등을 꼽는다. 듣고 보니, 또 일리는 있는 듯 싶다. 그러나 신 교수는 다른 일은 생각하지 않아 천직이라고 여기는 자신의 일을 하고 있다 보니 그다지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는 생각도 든다.

신 교수는 최근 자전거를 하나 장만했다. 아직 시작하지는 못했지만, 조만간 한강을 따라 바람을 가를 날을 기다리고 있다. 늦게 시작한 감은 없지 않으나, 우리의 삶이 길어지고 있으니, 열정은 청춘 외과 의사이다.

글 · 이정희 | 자유기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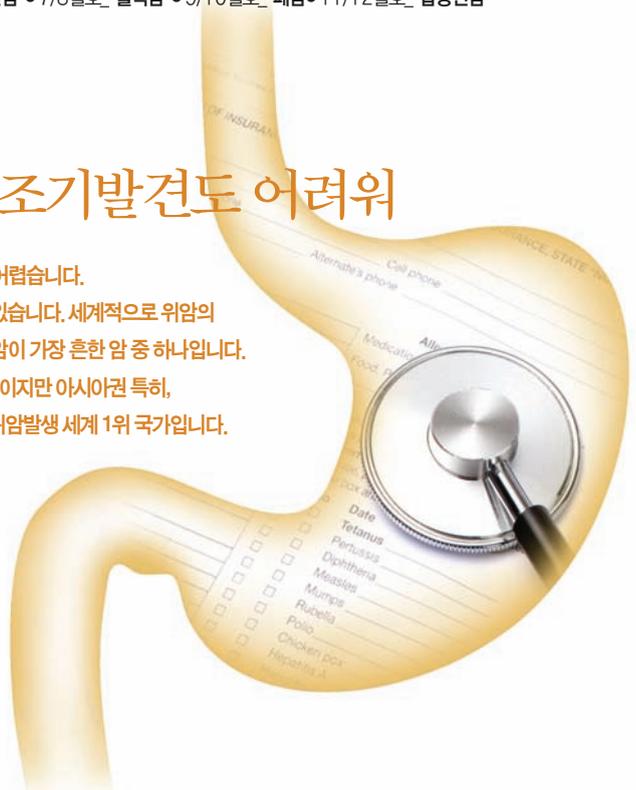
「연중기획」 암! 함께 이겨내요 암시리즈 4 위암

암시리즈
연재 순서

2011년 ● 9/10월호_유방암 ● 11/12월호_대장암
2012년 ● 1/2월호_소아암 ● 3/4월호_위암 ● 5/6월호_간암 ● 7/8월호_혈액암 ● 9/10월호_폐암 ● 11/12월호_갑상선암
2013년 ● 1/2월호_자궁난소암

위암 이야기 알게 될까 두려워 피하면, 조기발견도 어려워

외국보다 3배 이상 소금 섭취량이 많은 한국인은 위암에서 자유롭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한국인의 전체 암 발생률의 약 20% 정도가 위암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위암의 발생률과 사망률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위암이 가장 흔한 암 중 하나입니다. 위암의 발병률과 사망률은 문화의 발달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감소 추세이지만 아시아권 특히, 한국과 중국 및 일본에서 위암의 발생률은 높으며 특히 한국은 20년째 위암발생 세계 1위 국가입니다. 또한, 국내에서도 위암 발생률은 암중 1위이고, 암환자 10명당 2명은 위암입니다. 그리고 발생률이 높은 만큼 사망의 중요 원인이 되고 있어 사망률은 폐암에 이어 2위인 실정입니다.



위암의 증상은 어떤가요?

위암은 병의 경중과 증상이 비례하지 않는 암으로 유명합니다. 일반적인 위염과 증상이 비슷하여 잘 구분이 되지 않으며 말기라도 속이 더부룩할 정도의 가벼운 증상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암은 자각증세가 없어 쉽게 발견하지 못하기도 하며 나이가 젊을수록 단순 속 쓰림이나 소화불량으로 치부하기 쉬워 증상만으로는 조기 발견이 어려운 암입니다. 위암의 증상으로는 이전과 비슷한 식사를 하는데도 소화가 덜 되고 속이 답답하고 위가 무겁고 불쾌하며 뱃속이 편안하지 않고 위가 부은 듯 더부룩한 증상을 보이며, 속이 메스껍고 구역질이 나며 신물 혹은 쓴 물이 올라오며 명치 끝이 아프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기운이 없고 몸이 나른하거나 체중이 갑자기 줄거나 빈혈이 생겼거나 입맛이 없는 증상 등이 지속되면 바로 병원을 찾아 정확한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염이나 위궤양과는 어떻게 구별해야 할까요?

증상만으로는 판단이 매우 힘들어서 위내시경검사를 통해

감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내시경검사에서도 10~20% 정도에서 위염과 조기 위암, 양성 위궤양과 악성궤양의 감별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암이 의심되면 반드시 위염 및 궤양 부위에서 조직검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위암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위암의 원인으로는 환경적인 요인으로 H.pylori균의 유무,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집단, 건조, 훈제, 소금에 절인 음식, 담배 등이 있으며 유전적으로 가족력이 있거나 혈액형이 A형에서 위암의 발생률이 높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위암도 조기발견이 중요하겠지요?

위암의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을 못 느껴서 병원을 방문할 때는 이미 병이 진행되어 치료시기를 놓치는 수가 많습니다. 위암은 조기에 발견 시 위점막에만 국한된 암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내시경 수술이 가능할 수 있으며, 완치율도 높습니다. 1



신웅운 교수 | 소화기내과
 • 전문분야 : 위암, 대장암, 위·대장질환
 • 진료시간 : 월(오전), 수(오전), 목(종일)
 • 문의 : 소화기내과 ☎032-890-2224

기 암으로 진단되는 조기 발견하여 외과적 수술 또는 내시경 점막하절제술 시행하는 경우 완치율은 90% 이상입니다. 따라서 조기발견을 위해 1~2년에 1번 정기적인 위장조영술 또는 위내시경을 이용한 건강검진이 필요합니다. 국가에서도 암 조기발견율을 높이고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암 조기검진 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만 40세 이상 대한민국 남녀라면 누구나 2년마다 무료로 위암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암 진단은 어떻게 이뤄집니까?

상부 위장관조영술 또는 위내시경으로 진단과 동시에 조직 검사를 통해 확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검사에서 위암 판정이 나면 CT, MRI, PET-CT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병기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위암 치료 방법은 어떤가요?

기본적으로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수술입니다. 위암 부위를 수술로 절제하고 주변 림프절도 절제하여 종양의 완전제거를 수술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임파선 전이가 없고 점막에만 국한된 조기 위암에서 내시경적 점막절제술이 개발되어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시술중입니다.

항암화학요법은 수술 후 임파선 전이가 확인되거나 수술이 불가능한 진행암의 경우 치료 효과를 높이고 재발방지 및 증상감소와 생명연장을 위해 사용됩니다. 그 외에 위암의 진행이나 생존과 관계없이 환자의 증상을 완화시키는 여러 고식적인 치료법도 있습니다. 종양이 음식물이 내려가는 길을 막아 구토를 하면 이미 전이가 되었다 하더라도 막힌 부위 전후의 장을 이어 붙이는 장루수술을 하여 음식물을 섭취 가능하게 수술할 수도 있고, 위내시경을 이용해 막힌 부위를 넓히거나, 위장이 위치한 복부에 구멍을 뚫고 위에 도관을 삽입하여 영양공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위암 예방하는 생활습관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조기 발견으로 위암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소 위암에 걸리지 않는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몸에 익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위암은 소화기관 중 가장 넓은 부위를 차지하는 위에 생기는 암인 만큼 음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맵고 짠 음식이 많은 우리나라는 평소 식생활 습관이 위에 자극을 많이 주어 위암 발병을 높이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짠 음식, 탄 음식을 비롯해 훈제된 식품이나 방부제로 사용되는 아질산염 등도 위암의 발병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야식은 위 손상 및 소화불량의 지름길이며 습관적으로 밤늦게 음식을 먹는 경우 충분한 소화흡수가 안된 채로 잠이 들고 잠이든 상태에서 음식은 위속에 오래 정체하여 세균에 의해 음식물이 분해되면서 위점막 손상을 일으키는 다양한 아질산염화합물을 생성하기 때문에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에 신선한 과일이나 야채의 경우 비타민 A, 비타민 C 등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위암의 발생위험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암에 대한 당부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람의 몸은 40세가 넘어가면 많은 이상 징후를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특히 위암은 대부분의 경우 특별한 증상도 없고, 증상이 있더라도 다른 질환과 구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바쁘게 사는 현대인들은 검진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모르고 지내면 되는 것을 괜히 검진해서 병을 알게 될까 겁이 난다는 이유로 검진을 미루게 됩니다. 하지만 길게 내 인생과 가족의 행복 등을 생각하여 조기발견과 완치를 위해 적극 암 검진을 받아보는 것을 권합니다.

(경인방송 iTVFM(90.7MHz) 라디오 종합병원 방송내용)

위암의 수술 치료 위 절제 안 해도 되는 다양한 위암 수술 시대

위암 치료의 근본은 수술이며, 외과적 절제만이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법이다.
위암의 수술은 암과 주위 정상 위 조직의 절제 및 위 주위 림프절의 광범위한 절제로 이루어진다.



위 절제

위의 절제는 암 부위와 함께 주위의 정상 조직을 충분히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며, 암 위치에 따라 위의 부분 또는 전체를 체계적으로 절제하게 된다. 진행위암이 위 하부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십이지장 1~2cm를 포함하여 위의 하부 2/3~3/4을 절제하고 위 상부를 남겨둔다. 암이 상부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위 전체를 절제하게 된다. 위절제 후에는 위 또는 식도와 소장(십이지장, 공장)을 연결하여 주는 위장 재건술이 필요하게 된다.

림프절 절제

림프절은 위암이 주위로 퍼져 나가는 주요 경로이며, 실제로 위암의 림프절 전이는 흔한 편이다. 그러므로 수술의 근치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 주위의 림프절을 광범위하게 절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조기 위암에서도 통계적으로 약 10%

에서 림프절 전이가 발견되므로, 컴퓨터단층촬영 상 또는 수술 중에 림프절 전이가 의심되면 표준 림프절 절제술을 시행하여야 한다.

축소수술

최근 진단법의 발달과 건강검진의 증가에 따라 암 조직이 점막 또는 점막하층에 국한된 조기 위암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 매년 새로 발생하는 전체 위암의 약 50%를 조기 위암이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기 위암의 일부는 림프절 전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표준 술식이 지나친 치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수술에 의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후유증을 줄이면서 수술의 근치성은 유지하는 축소수술(또는 시술)이 근래에 시행되고 있다. 내시경 점막 절제술은 2cm 이하의 고분화 점막암에서 시행되며 수술이 불필요하다. 복강경 위 절제술은 컴퓨터단층촬영 상 림프



신석환 교수 | 외과

- 전문분야 : 소화기외과, 위암
- 진료시간 : 월(오전), 목(오전)
- 문의 : 외과 ☎032-890-2250

절 확대가 없는 일부 조기 위암에서 시행될 수 있다.

위 절제술 후 합병증

위 수술 후 초기의 합병증으로는 출혈, 위 (식도)-소장 연결 부위의 누출, 연결 부위의 폐색 등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재수술이 필요하게 된다.

후기 합병증으로는 역류성 위염 (식도염)과 덤핑증후군이 가장 흔하다. 역류성 위염은 담즙의 역류에 의하며, 복통, 쓰림, 구토 등이 나타나며, 자다가 깨게 되는 경우가 많다. 잠자기 수 시간 전부터 음식 섭취를 하지 않으면 증상이 많이 개선된다. 덤핑증후군은 나타나는 시간에 따라 조기와 후기로 나눈다. 조기 덤핑증후군은 식후 30분 전후에 심계항진, 땀 흘림, 무기력, 복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가리키며, 이는 고농도의 음식물이 소장으로 빨리 들어가면서 체액이 장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후기 덤핑증후군은 식후 2~3시간 후에 식은땀, 무기력, 현기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가리킨다. 소장에서 탄수화물이 흡수되면서 일시적으로 혈당이 상승하고, 시간이 경과되면서 반작용으로 저혈당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덤핑증후군의 치료는 우선 식이 조절이 가장 중요하며, 그 외 약물치료 또는 수술 치료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위수술 후 관리

퇴원 후 환자가 신체적으로 안정되고 식사를 어느 정도 잘할 때까지는 1~2개월에 한 번씩 외래 진찰을 받는 것이 좋다. 그 후는 3~6개월마다 외래를 방문하도록 한다. 외래 진찰 시에는 복통 등의 이상 증상에 대한 병력청취, 신체검사, 영양 결핍, 빈혈 등에 대한 검사 등을 시행한다.

위수술 후 식사법은 환자의 영양 유지, 역류성 위염과 덤핑증

후군의 예방 등에 매우 중요하므로 구체적인 교육과 확인이 필요하다. 식사법에 대한 안내서는 별도로 제작하여 퇴원 시 환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한편, 위암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컴퓨터단층촬영, 위내시경검사 등의 정밀 검사를 시행하는데, 진행위암의 경우는 6개월마다, 조기 위암은 1년마다 하면 된다.



위 절제 후의 식이요법

위는 여러 기능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위절제 후에는 이러한 위기능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식사하는 것이 식이요법의 기본입니다.

- 1회의 식사량은 적게 드는 것, 즉 소식 (小食)이 기본이며, 따라서 하루 식사를 4-5번 (위전절제환자는 7-8번)으로 나누어 자주 하셔야 합니다.
- 음식물을 10번 이상 꼭꼭 씹어 잘게 만들어 천천히 삼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식사 시간은 30분 이상 걸리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강조하면, 과식과 빠른 식사가 가장 나쁜 습관입니다. 과식과 빠른 식사는 복통, 설사, 땀 흘림, 어지러움 등 덤핑증후군의 증상을 초래합니다.
- 식사 중 물은 반 컵 이하로 제한하고, 물, 국물 등은 식사 1시간 전후에 따로 드셔야 합니다.
- 음식물은 특별히 피해야 할 종류는 없으며,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채소, 과일들을 골고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밥, 빵 등 탄수화물만을 위주로 하는 식사는 2-3시간 후에 저혈당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지나치게 맵고, 짜고, 단 음식은 자극적이므로 피하셔야 합니다.
- 술, 담배는 끊고, 탄산음료는 피하셔야 하며, 차는 진하지 않게 하루 1-2번만 드십시오.
- 주무시기 전에는 가능하면 음식을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담즙 역류 증상이 있는 분은 취침 2-3시간 전부터는 반드시 금식하셔야 합니다.

“나의 암 극복기”

암 치료, 인하대병원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숙희라고 합니다. 지난 2006년 인하대병원에서 위암을 진단받고 지금은 완치되어 이렇게 어려운 앞에서 제 이야기를 웃으며 할 수 있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위암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믿으시겠어요?

저는 2000년 6월에는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인하대병원에서 수술을 받기도 했습니다. 벌써 11년이 넘어가네요. 수술을 받을 당시에 인하대병원과 가족 덕분에 씩씩하게 암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수술 후에는 정기적인 외래 방문 이외에는 치료 없이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6년을 별 문제 없이 잘 지내던 중 언제부터인가 소화가 잘 안 되고 위통이 있을 때마다 병원을 찾았고, 그렇게 암 이 자라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작은 병원에서 처방대로 약을 먹었지만, 점점 위통이 심해졌습니다. 2006년 4월 어느 날, 위내시경 검사를 한 결과 위암 2기 판정을 받았고, 그 순간,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내가 왜? 또 암에 걸렸을까? 한번도 걸리기 힘든 암을 두 번씩이나..... 그 순간은 금방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것도 위암이라니 주변에서 위암 걸려 못 먹고 힘들어하는 이야기를 들어서 더욱 겁이났습니다. 하지만 가족들 얼굴을 떠올리며 말기 암이 아닌 것에 감사하며 “이겨내야겠다” 라고 다짐했습니다.

4월 19일 인하대병원 신석환 교수님 집도 하에 위를 70~80%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위가 거의 안 남은 상태에서 먹는다는 것이 가능할까? 먹은 것이 어디로 간다는 것인지? 이제부터 어떻게 어떤 것을 먹



어야 하는 건지? 음식을 어떻게 만들어 먹어야 하는 건지? 등 커다란 산이 막혀있는 듯한 답답함으로 더욱 힘들었습니다. 말로 표현하기 힘든 고통... 아픔... 경제적 어려움... 6개월 동안의 항암 치료...

수술 후 몇 년 동안 먹고 토하기를 반복했습니다. 외과 병동에서 위 수술 후 적응기간이 필요하고 덤핑 증후군이라는 게 나타날 수 있다고 입원했던 병동 간호사와 교수님께 수차례 교육을 받았지만 실제로 경험해보는 것은 교육과 또 다른 힘든 체험이었습니다.

살이 마르고 기운이 없어졌습니다. 무엇을 먹어도 맛을 모르겠고 살기 위해 겨우 먹었지만 소화하기도 어렵고 내가 과연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좌절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가족이나 이는 사람들에게 차마 표현하기조차 미안한 마음에 힘들어할 때 인하대병원에 있는 간호사, 교수님의 도움으로 마음에 위안을 받았습니다. 이때 간호사님과 의 많은 대화가 도움 되었으며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마치고 여동생이 사는 강원도 평창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에서 2년여 동안 요양을 하며 육식을 좋아하던 식당관을 산나물(취나물, 돌나물, 민들레, 머위때, 곰치, 된장찌개, 참마, 잡곡밥, 홍삼) 등을 복용하며 자연식과 채식 위주로 바꾸고 매일 산책과 체조를 1시간씩 하루도 빠지지 않고 했습니다. 저에게는 힘든 싸움이었지만 저를 치료해주신 인하대병원 의료진을 생각하며 힘을 냈습니다. 그래서인지 지금은 예전처럼 먹던 양만큼 먹고, 먹고 싶은 음식들을 먹을 수 있습니다. 예전의 나로 돌아와서 너무 기쁩니다.

저체중이며 늘 피곤하던 몸이 수술한 지 5년이 지난 지금은 정상 체중에 정상인이 되어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시 태어난 듯 소중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인하대병원과 여러 선생님들의 보살핌에 감사드리며 누가 암 치료를 해야 된다고 하면 인하대병원에서 하라고 추천해볼 생각입니다. 인하대병원에 항상 감사합니다.

저의 이야기가 지금 암과 힘들게 싸우고 있는 분들과 가족분들에게 큰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2011년 10월 김숙희-



비타민과 건강 젊어지는 밥 먹기



밥이 보약?

배고픈 시절에는 진짜 밥이 보약이었다. 세끼 밥만 찾아 먹어도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당연히 기운이 세고 건강했다. 평균 수명이 그리 높지 않아 60이면 환갑잔치를 하고 70세를 넘기지 못하고 대부분 돌아가시던 시절에는 세끼 밥만 잘 드셔도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는 데에는 크게 무리가 없었다. 그러나 시대는 변했다. 밥으로 대표되는 대영양소, 특히 탄수화물과 고열량 식품은 여기 저기 넘쳐나서 모두가 과잉 섭취때문에 질병을 주의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평균 수명이 75-85세에 이른 요즘, 암이나 뇌혈관 질환에 걸리지 않으면 누구나 90세까지 살 수 있는 시대가 되니, 밥심만으로는 70세 이후의 노후를 기운차게 살기가 어렵다.

노화가 무엇인가?

시간이 흐르면서 몸 전체의 근육량은 줄어들고 근육의 강도도 떨어져 팔다리는 가늘어지고 배는 늘어진다. 피부는 얇아지고, 젊을 때의 도자기 같은 빛과 탄력을 잃고 주름이 늘어간다. 살짝 넘어지기만 해도 뼈가 으스러져 수술해야 하고, 면역기능도 떨어져 온갖 병에 걸리기 쉬워진다. 그런데 이런 노화 과정의 상당 부분은 우리가 먹는 것에 의해 결정된다. 단백질 결핍은 근육량 감소와 피부탄력저하의 주범이다. 각종 비타민 미네랄 결핍



글 · 이연지 교수 | 가정의학과
 • 전문분야 : 항노화영양치료, 생활습관교정, 스트레스
 • 진료시간 : 외래_ 수(오전), 금(오전)
 비만센터_ 월(오전), 화(오후), 목(오후)



은 뼈를 약화시키고, 면역력을 저하시킨다. 사실, 폭넓은 의미에서 보면 옛 어른들의 말씀처럼 밥 (영양을 잘 섭취하는 것)이 보약일 수 있다. 잘 먹는 것은 노화를 지연시키고, 더 기운차게 살기 위한 필수 조건이 되는 것이다.

반찬이 보약!

잘 먹는 것이란 많이 먹는 것이 아니다. 특히나 밥으로 대표되는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것은 한국인의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저분한 기름으로 조리된 각종 배달음식이나 고지방 오리 로스 또는 삼겹살구이는 우리의 적이다. 예전엔 잔칫날이나 먹었지만 이제 언제든 먹을 수 있는 각종 튀김, 전, 국수류도 우리 편은 아니다. 노화방지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소는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다. 건강한 식사란 한마디로 다양하고 균형 잡힌 식단을 소식하는 것, 한식으로 치자면 단백질 공급해주는 삶은 살코기 또는 생선구이 등과 풍부한 색색의 나물 반찬을 충분히 섭취하고 약반 공기 정도의 밥을 함께 먹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우리에게 건강한 노후는 오는가?

누구든지 고단백질 식이의 원칙에는 대안이 없다. 즉, 신선한 저지방 육류, 해산물, 콩류, 달걀, 우유를 열심히 챙겨 먹어야 한다. 바빠서 신선한 과일, 야채 챙겨 먹기 힘들 분들에게는 종합비타민 미네랄 제제를 권한다. 신선식품을 골고루 먹는 것 같은 효과는 없어도 실제로 영양실조에 빠지는 것보다는 낫다. 음주가 잦거나 편식을 하는 분들(특히 고기 안 드시는 분들)에게는 비타민 B군(엽산, 코발라민, 피리독신 등)을 모아 놓은 영양제를 권한다. 만성음주는 B군의 흡수를 늦추고 술의 해독에 많은 B군이 필요로 해 결핍되기 쉬운데, 이 B군의 상당수가 동물성음식에만 들어있다. 위축성위염이 오래된 분들에게는 미네랄(특히 마그네슘, 아연, 크롬 포함)제제를 권한다. 미네랄의 흡수에는 위산의 역할이 절대적인데 위축성위염은 위산의 분비와 기능을 떨어뜨린다. 골밀도검사에서 이상을 보이는 모든 분에게 칼슘과 비타민 D 복용은 물론이고 고단백질 식사를 권한다. 뼈도 근육도 단백질이 없이는 튼튼해질 수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봄 다이어트를 계획하시는 분들께 간곡히 고한다. 고단백질식이 없는 다이어트는 절대 건강한 다이어트가 아니다. 그리고 비타민과 미네랄의 복용은 현재의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곧 닥칠 요현상을 예방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스마트폰과 눈 건강



2011년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만12~59세 스마트폰 이용자 4,000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이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67.4%가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스마트폰을 자주 확인한다'고 대답하였다. 스마트폰의 대중화는 지나친 스마트폰 사용을 유발하고 이는 눈 건강을 해치게 된다.



글 · 오중협 교수 | 안과
•전문분야 : 백내장, 녹내장
•진료시간 : 월(오전), 화(오후), 목(오전), 금(오전)
•문의 : 안과 ☎032-890-2400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장기간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눈의 불편함을 통틀어서 VDT증후군(visual display terminal syndrome)이라고 하고 이 증상에는 눈의 피로, 시력저하, 두통, 눈이 뻑뻑하고 따가운 증세 등이 있다. 이는 현대인들의 눈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질환이다. VDT 증후군은 컴퓨터단말기증후군이라고도 하는데 사무자동화로 PC 등 브라운관이 부착된 VDT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후군으로 스마트폰 사용자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다. 컴퓨터 등의 디스플레이를 장시간 보면서 작업하는 사람들은 눈이 피로해지거나 침침해 지며 또는 아프거나 시력이 떨어지는 등의 여러 증세와 머리가 아프거나 무거워지는 증세, 그리고 구토와 불안감 등 전신에 걸친 증세가 나타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작업자는 정기적인 시력, 안위(眼位), 안내압(眼內壓) 측정 등의 검진을 받아야 함은 물론, 일정시간의 작업 후에는 휴식을 취해야 한다. 또한, 스마트폰의 작은 액정 속 글자와 화면을 주시하는 상태가 계속

반복될 때는 시력저하의 원인이 된다. 특히 스마트폰 사용은 대표적인 근거리 작업이어서 근시를 유발해 시력을 떨어뜨린다. 조명부족, 눈을 자주 깜박이는 작업, 고속도를 요구하는 작업을 위해 눈의 조절근을 과도하게 사용하여 눈이 피로해지고 흐릿해지는 증상을 안정피로(asthenopia)라고 한다. 안정피로는 휴식을 취한다고 해서 쉽게 사라지지 않으며 안과에 내원해 원인에 대한 진단과 그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 그대로 방치할 경우 시력저하나 두통, 복시현상 등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스마트폰 시대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스마트폰으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지름길은 통화 이외의 사용을 가급적 줄이는 것이다. 스마트폰을 반드시 켜야 하는 상황이라면 10분 이상 집중해서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장시간 사용해야 할 때에는 30분 사용 뒤 1~2분간 눈을 감거나 먼 곳을 주시하며 눈에 휴식을 주도록 한다. 미국에서는 '20-20-20 룰(rule)'이라고 해서 20분 집중 뒤에는 20초간 20피트(6m) 이상 떨어진 물체를 주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눈 건강을 위해서는 스마트폰을 정면보다 30도 정도 아래에 두고 사용해야 피로를 덜 느낄 수 있으며 근시 예방을 위해 스마트폰과 눈 사이는 적어도 40~50cm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 스마트폰 액정 화면은 너무 밝으면 눈 건강에 해롭다. 또 가능



한 허리를 등받이에 밀착시키고 곧게 편 다음 거북목 자세가 되지 않도록 턱을 약간 당긴 상태에서 단말기를 주시하면 눈과 몸의 피로감을 줄일 수 있다. 스마트폰의 글자 크기를 키우는 것도 한 방법이다.

눈 건강을 위한 영양소의 복용도 도움이 될 것이다.

루테인은 망막을 손상시킬 수 있는 활성산소를 흡수하는 능력이 있어 눈 건강에 도움이 된다. 루테인은 자연계 600종 이상 알려진 카로테노이드계 색소 중 하나로 양배추·시금치·브로콜리 등의 녹색채소와 달걀노른자 등에 다량 함유되어 있으며 우리의 몸에서 항산화 기능과 자외선과 청색광의 흡수력이 뛰어나 눈부심 현상, 물체가 흩어지는 등의 여러 시각장애를 완화시키는 데에 도움이 된다. 동물의 간, 당근, 고구마, 해바라기, 토마토, 해산물, 효모, 시금치, 파슬리, 냉이, 호박, 사과, 부추 등에 많이 들어 있는 비타민 A는 눈의 망막에서 빛을 뇌신경 전달신호로 바꾼다. 즉 우리가 눈으로 사물을 볼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비타민A이다. 망막의 간상세포와 원추세포는 각각 어두운 곳과 밝은 곳의 시각작용을 담당한다. 간상세포의 시각작용을 유지하려면 비타민A와 단백질 '옵신'이 결합해 '로돕신'이 만들어져야 한다. 만일 비타민A가 부족하면 간상세포에서 로돕신이 형성될 수 없어 어두운 곳에서 잘 볼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야맹증·안구건조증·결막염 등 각

종 안과적 질환이 발생한다. 이 외에 비타민E가 포함된 버섯, 두부, 콩, 아몬드, 계란, 우유, 간 등은 노화성 황반 변성을 예방할 수 있고 오메가3 등의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도 눈 건강에 좋다. 그 외에도 글루타치온이나 다시마를 장기 간 복용하는 것도 눈의 노화 방지에 많은 도움이 된다.

안구건조증은 대체로 젊은이들보다 체력이 떨어진 노약자나 갱년기의 여성들, 과로로 피로가 누적된 중년층에 흔한 눈병이나, 요즘 들어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의 사용이 잦은 청소년들에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안구건조증은 눈을 감고 휴식을 취하기, 눈을 자주 깜빡여주거나 눈 운동 습관만으로 간단히 회복될 수 있다.

안구건조증의 치료법으로 가장 일반화된 방법은 인공으로 만든 눈물안약을 점안에서 부족한 눈물을 보충해 주는 것이다. 인공눈액은 눈에 물기를 보충 시켜주고 안구를 윤활 되게 하며 쉽게 건조해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낮에도 안연고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연고로 인해 흐리게 보일 수 있으므로 적은 양만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약물 요법과 함께 먼지가 많은 작업장을 피하고 가습기를 틀거나 하는 방법으로 공기를 습하게 만들어 주는 것도 효과적이며 자주 눈을 감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 알레르기 결막염, 안검염 등이 동반되었을 때에는 이의 치료도 병행해야 한다.



2012년 신규직원 교육후기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나’

글 · 김민숙 간호사 | 병동간호팀 동12병동

간호사가 되고 싶다는 꿈 하나로 간호대에 입학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120명이 넘는 동기 선생님들과 함께 인하대병원에서 간호사로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동기 선생님들과 함께 저 역시 인하대병원에 입사하는 것이 목표였던 만큼 인하대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되어 기쁘고, 많은 동료 선생님들은 간호사로 근무하며 부딪히게 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제가 지쳐 쓰러지지 않는 힘이 될 것 같아 든든합니다.

이들 동안 진행되었던 원내 입문교육은 병원 내 존재하는 여러 부서의 업무를 파악할 수 있었고 간호사의 업무와는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해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병원 내 개개의 부서들은 각자의 업무만을 하는 것이 아닌 상호 관련이 있는 업무를 하는 하나의 유기체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병원 내 모든 부서가 상호 협력해야만 최상의 효율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병원의 구성원으로서 저의 몫을 최선을 다해 해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1박 2일 동안 진행된 원내 입문교육의 첫 시간에 들었던 ‘새로운 미래를 위한 패러다임의 변화’에서 강사님이 힘들었던 시기를 이겨낼 수 있게 한 건 친구들과의 약속이었다고 말하신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마다 더 열심히 하는 하루가 되도록 저 자신과 항상 약속 할 것입니다. 또한, 훌륭한 간호사가 되겠다는 약속을 가슴 깊이 새겨 어떤 힘든 일이 닥쳐도 견뎌낼 수 있는 버팀목으로 삼겠습니다.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이며 매일 아침 행복하겠다고 결심하면서 나는 잘해낼 수 있다는 긍정적 착각에 빠져 살아야 한다 는 말씀처럼 저 역시 매일 매일이 행복하다는 긍정의 착각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싶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다 제 마음먹기에 따라 즐거움과 긍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던 교육이었습니다. 이 모든 교육은 앞으로 나아가면서 겪을 일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어려울 땐 이겨낼 수 있도록 제 마음가짐에 변화를 준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입문교육을 받고 3월의 시작과 함께 직무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일찍 근무를 시작할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하였기에, 여가를 즐기는 주위 친구들을 보며 약간의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무교육을 받고 나니 학교에 다니며 그동안 무엇을 배웠나 생각이 들 정도로 부족하게 느껴지는 제 모습에 쉬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저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병동에서는 더욱더 배워야 할 것이 많을 텐데 병원에 가면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한다는 선배님들의 말씀처럼 새로 시작한다는 각오로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간호사는 없습니다. 저는 수습기간에는 실수하며 서투르게 일을 배우겠지만, 한 번 배운 일에 대해선 두 번 실수하지 않는 간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암 환자 소원 들어주기!!!!

환자의 마음을 꼭 채우는 놀랍고 아름다운 일, 세 가지

글 · 유미애 암진료지원 간호단위책임자 | 간호지원팀



Granted of Three
Wishes

“암으로 인한 입원이나 장기적인 치료 때문에 하고 싶지만 이루지 못하는 작은 소원을 적어주세요. 사연을 적어주시면 인하대병원 암환자 돕기 후원회에서 소원을 들어 드립니다.” 라는 소원편지를 암환자에게 나눠주며 과연 암 환자분들께서 소원을 적어주실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시작한 <암환자 소원 들어주기> 활동. 예상외로 2일 만에 6명의 환자가 소원을 적어주셨다.

“동해바다를 여행하고 싶어요” “나 때문에 고생한 가족들과 맛있는 곳에서 식사하고 싶어요” “암에 걸리고 나니 남편에 대한 사랑과 고마움이 커서 함께 젊은 시절 추억할 수 있는 영화를 보고 싶어요” “가족 중에 5명의 암환자가 있어 자녀들이 암에 걸릴까 두려워요, 암 검진을 받게 해주세요” “암환자용 식사를 제공해주세요”라는 등 다양한 내용의 소원들이 접수되었다. 그중에서 3가지 소원을 들어주었다.

♣_ 남편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과 고마움에 대한 표현을 위해 동영상 편지를 만들어 남편 핸드폰으로 발송하고 유료글래스 영화티켓, 팝콘 등 주전부리할 수 있는 쿠폰을 증정했다.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대학병원에서 이렇게 환자를 위한 이벤트를 한다는 것이 안 믿어지고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하시던 환자분의 수줍은 미소가 떠오른다.

1 Wish



❀_ 가족 중에 암환자가 5명이던 유방암 환자는 28살 딸과 24세 아들이 있었으며 두 사람 모두 중앙표지자 검사를 3종류 피 검사해주고 딸은 유방과 갑상선 초음파를 시행했으며 임주한 혈액종양내과 교수의 종합적인 소견과 암 진료 상담실에서 정기 암 검진과 암을 예방하는 생활습관에 대한 교육을 받게 했다. 검사받는 내내 고마워하셨고 엄마의 소원을 통해 자녀들이 암에 대해 조금은 안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활동하는 입장에서 가장 뿌듯한 소원 들어주기 활동이었다.



❀_ 마지막으로 대장암 환자분은 여러 번 재발되어 항암제치료를 받았던 분은 강원도 멀리서 오시는 분으로 경제적인 부분에 도움을 받고자 하나 국가지원은 안 되는 상황이라 많은 고민을 하던 끝에 MBN '희망프로젝트 트로트가 간다'에 출연하면 지원이 된다 하여 지난 14일 촬영하고 미니콘서트를 열어 다른 입원환자, 가족까지 모두 흥겨운 시간을 갖고 색다른 추억거리를 만들게 되어 너무나 좋은 시간이 되었다. 소원편지를 작성해주신 환자의 부인께서 암 진료 상담실로 찾아와 "나는 인하대병원을 생각하면 가까운 친척을 만나러 오는 좋은 기분이 들고 늘 따뜻하고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는지 걱정이라 하셨다.

2 Wish



환자분이 항암제치료 후 잘 이겨 내시고 쾌차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라며 위로해드렸다.

무엇보다도 암환자 소원 들어주기를 성공리에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업에 뜻을 함께하는 많은 암 후원회원들과 좋은 취지라며 흔쾌히 도움을 주신 많은 교수님들, 특히 초음파 검진을 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신 김윤정 영상의학과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꼭 전하고 싶다.

3 Wish

3 Wish

암 진료 상담실에서는 2011년 암환자 돕기 후원을 결성하여 암환자에게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며 어떤 부분을 도와야 하는지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모았다. 그중에 항암제치료 때문에 머리가 빠지는 환자를 위해 암환자 따뜻한 겨울나기 모자뜨기를 2010년부터 했으며 2011년에는 모자/목도리를 100개 뜨고 나누는 큰 행사를 했다. 또한, 암환자 소원 들어주기 활동도 이번 경험을 통해 올해에는 보다 더 다양하고 암환자의 감성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익한 활동을 할 예정이다. 암 환자의 가장 큰 소원은 아마도 암이 완쾌되는 것이리라 하지만 그보다 앞서 우리가 그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함께 나눈다면 완쾌되는 과정에서 마음까지도 치유되는 기적을 경험할 것 같다.



다시 봄이 오면

긍정의 힘으로 이겨내는 너, 참 아름다운 사람

디자이너의 꿈을 꾸는 나의 태양이에게.....

몇 년 전 우연한 사고로 인해 우여곡절 끝에 이곳 인하대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몇 달간의 병원생활을 한 적이 있었지?

경국 장애를 안고 휠체어를 타고 생활을 하게 되었었지. 그때 너는 아홉 살이었는데, 어느덧 열여섯 살이 된 너는 또다시 한 딸의 병원생활을 하게 되었구나.

지난 몇 년간의 삶은 남들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었었지.

장애 후유증에 시달려야 하고 병원에서 받은 재활훈련이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해야 하는 시간들이었어. 그러나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도 항상 성실하게 학교생활에 입하는 너를 보며 감사하고 대견했었다. 육체적인 아픔보다도 더한 정신적인 고통을 긍정의 힘으로 이겨내고 밝게 생활해가는 너는 참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너를 어찌해 줄 수가 없어 절망하는 나를 일으켜 세우는 힘이기도 했다. 너를 의지하게 되고 너의 희망이 나의 희망이 되어가고 나의 태양이 되어 빛나기까지 너는 몇 년간의 시간을 많은 사람들의 배려와 관심과 사랑으로 커 왔었다.

태양이 너는 이제 희망의 이쁨으로 디자이너를 꿈꾸는구나.

그 꿈이 너에게 행복의 날개를 달아 줄 것이리라 믿는다.

나의 태양아! 언제나 그랬듯이 너는 또다시 힘을 내야겠지.

너의 고운 얼굴에 밝은 미소가 떠나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노력과 희망의 꽃다발을 이해와 용서라는 이쁨으로 너에게 보낸다.

2012년 3월 햇살 따스한 오후에

- 업자가 -



▲태양이가 만든 토끼화분

태양이(기명)는 초등학교 2학년 때 허리 부상으로 이후 하반신 마비가 되어 자체장애 1급 진단을 받고 생활을 하던 중 감각이 없는 하체에 화상을 입게 되어 본원에 입원하여 약 한 달간의 화상치료와 피부이식수술까지 받게 된 중3 여학생입니다. 초등학교 생활도 교실에서 누워서 수업을 받아야 할 정도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왔지만, 너무도 밝은 모습으로 디자이너의 꿈을 키우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화상치료 때문에 똑바로 눕지 못하고 엎드려서만 생활해야 하는 병상 생활 중에도 학업을 늦출 수가 없어서 참고서를 붙들고 공부를 하고, 그림을 그리고 있는 태양이의 팔꿈치에 붙은 굳은살이 이제는 자연스럽게만 합니다. 이른 아침 태양이의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어린 동생들 학교 보내기 위해 집에 다녀오고, 다시 병원으로 돌아와 태양이를 간병해야 하는 어머니는 자신의 힘겨움보다 더 외로운 싸움을 이겨내고 있는 태양이가 못내 안쓰러워 흐르는 눈물을 몰래 감추곤 합니다.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아 오면서 가세가 기울어져 병원비를 염려하기도 했지만, 사회복지상담을 통해 다행히 병원비 지원을 받게 되어 병상 생활도 이젠 마음 편히 지내고 있습니다. 병실의 침대 옆 창가에는 태양이가 만든 토끼 화분이 태양이와 어머니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태양이가 멋진 디자이너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세요~.

* 태양이는 자체장애 1급 진단을 받고 치료 중에 있습니다. 도움을 주실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 상담 및 후원 문의: 인하대병원 진료지원팀 원공주 사회복지사 ☎전화 032-830-2870





인천탁주(소성주) 정규성 대표의 기부예찬

성공을 꿈꾸며, 지쳐있는 서민에겐 기부현실의 의미를

과거 서민들의 술로 사랑받던 막걸리는 2000년대 초반 '웰빙 열풍'을 타고 다시 사랑받는 '국민 술'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양조장은 인천 양조장이었다. 지금의 배다리 부근에 인천 양조장 유적 터가 남아 있다. 인천을 대표하는 막걸리 '소성주'의 대표 정규성 씨는 인천 탁주가 대한민국 최고의 막걸리로 인정받는 그날을 위해 열심히 뛰는 한편, 주위의 어려운 이들을 돕는 기부활동에도 열심이다.

'소성주'를 만드는 인천 탁주 합동제조 제1공장은 정규성 씨가 3대째 운영하는 막걸리 전문 제조기업이다. "10여 전에는 막걸리 사업이 잘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SKII 화장품의 주성분인 '피테라'가 막걸리를 만들고 남은 술지게미에서 추출된 것임이 알려지면서, 천연 술로서 막걸리 매출이 눈에 띄게 늘었죠." 겉으로 드러나는 멋이나 화려한 치장보다 알찬 실속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규성 씨는 정작 술 한 잔을 제대로 못 하는 체질인 면서도 막걸리 예찬이 끝이 없다.

"소주 문화는 잘 몰라서 그렇지 일종의 일본 술 문화입니다. 우리 술인 맥가걸리는 당일 만든 걸 먹어야 맛이 가장 좋죠. 암과

당뇨예방에 좋은 아스파탐 성분도 있고, 피부미용에도 좋아요. 특히 발이 부었을 때 좋습니다."

동인천 자유공원 근처의 양조장 터가 정규성 씨가 태어난 곳이다. 그에게 마음의 고향과 같은 그곳 땅을 지금까지 팔지 않고 곳 지키고 있다. 회사 규모를 키우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정규성 씨는 이렇게 말한다. "회사 규모가 너무 커지면 지만에 빠지기 쉬워요. 수백억 재산을 가진 땅 부자가 완전히 망하는 것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큰 부자라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30년을 가기가 힘들어요."

정규성 씨는 몇 년 전부터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들의 수술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인하대병원에 후원금을 보내기도 했고, 지난 겨울에는 생계 곤란을 겪는 이들의 난방비를 지원했다. 올해 또한 수천만 원의 기부금을 내려고 준비 중이다.

자신이 기업을 3대째 잇고 있기에, 3세 무능력자들을 종종 보았다는 정규성 씨는 스스로 무능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 항상 긴장하며 살았다고 한다. 잘 시는데 착한 척(?)하다 망하는 경우를 어



▲ 2010. 2. 9 박운배 前부평구청장과 함께 (우측이 정규성 대표)



▲ 2009. 3. 직장 산악회 '소성산악회'의 시산제에서



릿 보았기 때문이라. 그런데도 정규성 씨가 기부활동을 하는 이유가 궁금해졌다. 그 이유는 단순 명쾌했다. “막걸리를 인천에서 파는 기업이다 보니, 인천시민에 대한 보답차원에서 기업 형편이 닿는 대로 하고 있을 뿐입니다.” 2010년부터 인천의 8개구에 소외계층 생계지원금을 기부하고 있는데 올해는 각 구마다 두 차례씩 기부를 더 확대할 계획이다.

어설르게 착한 일 하는 것을 경계하며 살아왔다는 정규성 씨에게 기부의 의미를 물어보았다. “상황에 따라 노인과 장애인, 형편이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지만, 딱히 도와준다는 생각이 들진 않아요. 그저 이웃들에게 내 집의 음식을 같이 나눈다는 생각 정도죠.”

그에게 기부란 자신이 버는 만큼 그 부(富)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위에 나누는 것이다. 부를 유지하려면 그에 맞는 선행이 따라줘야 그 부가 유지된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솔직히 말해, 그에게 기부는 자기 이익을 위한 것이다. 최근, 미국의 워런버핏과 같은 세계적 부자들이 사회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 세금을 더 내겠다고 하는 논리와도 비슷하다. 한발 더 나아가, 정규성 씨는 ‘겸손한 기부’를 강조했다.

자신이 부모로부터 혜택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일찍부터 다른 이들에게 베풀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정규성 씨는

주위 부자들이 망하는 것을 볼 때마다 왜 우리 집은 망하지 않는 것일까를 고민하다, 집안 대대로 남을 돕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고 덕(德)을 쌓아온 것이 그 이유라고 생각했다 한다. 그래서인지 그의 인생관에서 덕(德)은 매우 소중한 가치이다.

“제가 부모 덕에 살아선지 몰라도, 배푸는데 인색하면 순간순간 마(魔)가 끼거나, 돈을 버는 일이 만만치 않아요. 겸손한 이에게 돈이 찾아옵니다. 조금이라도 돈이 더 머물게 하고, 돈을 벌고 싶으면 기부해야 합니다.” 수입이 적은 사람도 자기 수준에서 조금씩 기부하다 보면, 당대는 아니라도 다음 대라도 반드시 그 복을 받거나 더 좋은 기회가 올 것이라고 얘기하는 정규성 씨의 기부 철학은 확고하다. 무엇보다 그의 기부철학이 주는 울림은 성공을 꿈꾸면서 일상에 지쳐 있는 고단한 서민들에게 기부의 현실적 의미를 일깨운다는 점에서 유용하기 그지없다.

“니쁜 일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고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것이 당대나 후대나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한대만 열심히 살면 다음 대는 반드시 잘살게 되어 있다는 믿음이 제가 지식교육에서 강조하는 핵심입니다.”

사업가로서의 꿈은 인천 탁주가 전국 매출 1위를 달성하는 것이지만, 개인적인 소망은 가난한 이들을 지원하는 재단을 설립하는 것이라는 정규성 씨. 비록 그는 가난을 겪어본 적은 없지만, 잘 살다가 형편이 어려워진 이들을 여럿 보면서 그것이 얼마나 힘든 삶인지, 특히 몸이 아픈데도 돈이 없어 찢찢매는 모습을 볼 때 가슴이 너무 아팠다고 한다. 그의 측은지심이 오늘의 기부활동을 뒷받침하는 큰 동력이다. 그는 직원들이나 친구들에게 기부를 권하지는 않는다. 다만, 이렇게 말할 뿐이다.

“착하게 살자는 거죠. 영악해야 잘 산다고 하지만, 착하게 사는 게 확실히 이기는 길이거든요. 10-20년은 영악한 것이 이길지 몰라도, 30년을 보면 착한 게 이깁니다. 단, 주관적으로 착하거나, 비굴한 것은 안 됩니다. 남들이 볼 때 착해야 하죠. 측은지심이 중요합니다.”

* 글 · 권영선 (사)희망배달본부 본부장

* 경인방송 희망배달본부 ☎ 032-830-1004

* 인천 탁주 협동제조 제1공정(소성주)_

부평구 청천2동 395-44 ☎ 032-524-5016

Q&A

건조시럽에 물을 섞은 후에는 반드시 냉장 보관해야

Q : 건조 시럽을 먹인 후 남은 약을 냉장고에 넣는 것을 잊었습니다. 복용해도 될까요?

A : 약을 보관할 때 중요한 점은 약효가 떨어지지 않고 유효 성분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관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약은 습기나 고온에 의해 유효 성분 분해가 촉진되어 물리, 화학적으로 안정성을 잃게 되어 치료 효과가 떨어지게 되므로 이러한 약의 변질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제약회사에서는 약품마다 적절한 저장 조건과 유효기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처음 약물의 효과를 100%라고 할 때, 점점 소실되어 90%까지 유지되는 기간을 의미하는데 실온보다 높은 온도 또는 습도가 높은 조건에서 보관한 경우, 차광 보관해야 하는 약 물을 빛이 드는 장소에 보관한 경우, 냉장 보관해야 하는 약을 실온에 보관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단축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건조 시럽 형태로 제조되어 복용 직전에 물을 섞게 되어있는 제제는 약효 성분이 물에 녹으면 불안정해지므로, 물을 섞은 후에는 반드시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다음은 인하대병원의 항생제 건조 시럽 제의 보관 및 안정성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분명	실온에서의 안정성	냉장보관에서의 안정성
아목시실린 + 클라불란산 칼륨 (오구멘틴시럽®)	실온보관 안됨	7일
세파클러(시클러시럽®)	1일	14일
세프포독심(비난시럽®)	1일	14일
세프라딘(브로드세프시럽®)	7일	14일
클래리스로마이신(클래리시드건조시럽®)	14일	냉장보관 안됨(쓴맛이 강해짐)

Q : 골다공증으로 비타민D만 처방받았는데 뼈에는 칼슘이 좋지 않나요?

칼슘제를 추가로 복용해도 되나요?

A : ‘골다공증이라고 했는데 비타민제만 처방받았다고 칼슘제와 건강기능식품 등을 구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때 처방된 ‘비타민제’는 활성형의 비타민D3제제로 생각되므로 의사의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칼슘제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칼슘은 원래 흡수가 잘 되지 않는 편으로 흡수율은 20~30% 정도이고 흡수가 좋다고 하는 우유도 50% 정도입니다. 그러나 비타민D3가 존재하면 장관에서의 칼슘흡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고칼슘혈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활성형 비타민D3를 복용할 때에는 식사를 잘하고 있다면 특별히 칼슘을 추가로 보충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칼슘의 지나친 섭취가 우려될 수 있습니다. 한편, 고칼슘혈증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위부불쾌감(오심·구토 등)이나 변비 등이 있습니다. 이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신의 판단으로 위장약이나 변비약을 복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들 약제에는 마그네슘이 배합된 것도 많기 때문에 고마그네슘혈증(오심, 구토)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비타민D3제제와 칼슘, 마그네슘이 함유된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병용할 때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 ※ 항상 환자분들 곁에 인하대병원 약사들이 함께 합니다
- ※ 약에 대한 문의는 : 주간! 032) 890-3323, 3327 | 야간! 032) 890-3315

정신건강의학과 새 단장

정신건강의학과가 한 달여의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2월 27일부터 새롭게 단장된 모습으로 내원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 함께 있던 임상심리실은 3층으로 이동하고, 넓어진 대기공간을 마련하여 내원하신 환자분들이 보다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화!! 고객 감동에 한 걸음 더 다가가다~~

병원 2, 3층에서도 병원이용 어렵지 않아요~

병원 2층과 3층에 자원봉사자 안내데스크가 설치되어 내원객들의 병원이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2층 안내데스크에서 만난 김창옥 자원봉사자님은 봉사자 가운데 주는 책임감이 무거우시다면, 의자에 앉아 고객을 기다리기보다 도움이 필요한 고객이 주위에 없으신지 두 눈으로 살피며 다가가서 도움을 드린다고 합니다.

자원봉사자는 병원의 얼굴로 웃는 낯으로 응대하는 것은 기본이며, 환자분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도록 도움에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모습에서 자원봉사자로서의 책임감이 남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병원 곳곳에 도움을 주시는 자원봉사자 분들이 있어 병원이용 어렵지 않겠지요?



2010년 적정성 평가 1위의 최고의 시설

전문 의료진의 진료와 사랑, 봉사정신이 이루어 냈습니다!



도화요양병원_ 전현양 병원장



전현양 병원장은 장기요양을 해야 하는 어르신들에게 오랜 투병생활과 고통으로부터 편안함과 새로운 희망을 드린다는 취지로 2009년 노인 재활요양병원인 '도화요양병원'을 개원하였다.

시작한지는 얼마 안 되지만 전 원장을 비롯한 전문 의료진과 간호사, 재활 복지사 등 도화요양병원을 이끄는 전 직원은 실력은 기본이고 사랑과 봉사정신이 없으면 사실 힘든 의료서비스를 실천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도화요양병원의 서비스 마인드는 2010년 전국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 유일하게 인천지역 1등급이라는 성과를 얻어 더욱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도화요양병원은 무엇보다 지하 1층에 250평 규모의 재활센터가 오픈되어 있어 재활은 물론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목표로 최적의 치료를 위한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치료 프로그램으로는 원예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등이 있고 문화공연, 생신잔치, 웃음치료 등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오랜 투병생활과 고통으로부터 편안함과 새로운 희망을 드리고자 하는 도화요양병원의 비람이기도 하다. 노인성질환, 관절질환, 중풍, 중추신경계 질환, 뇌혈관질환, 외상성 뇌손상, 척수 손상, 치매, 수술후 재활 등이 필요한 환자의 간호는 물론 사

회생활의 복귀 등을 위해 전문 간호 인력이 24시간 돌봄 의료서비스를 실시하고 있기도 하다.

노인병원은 단순한 진료행위를 통한 질병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와 복지, 또 정서적인 치유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삶의 현장이고 더 큰 의미로 보자면 의료 복지 서비스의 차원의 범주에도 속한다. 더구나 노령화 사회로 가는 요즘 삶의 질을 놓고 볼 때 단순하게 생물학적 수명 연장에만 의미를 두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노인 인구를 새로운 세대로 이해하려는 도화요양병원의 앞선 생각은 분명 의미 있는 일이라.

그래서 전 병원장의 마음은 늘 비쁘고 분주하다.

"어르신들의 요양, 재활은 단순한 진료행위를 통한 질병치료만을 위한 곳이 아닌, 지역사회의 노인전문진료 시스템으로 함께 하는 삶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라고 병원 운영 모토를 밝히는 전 병원장은 이울러 인하대병원과 협력병원 협약을 맺고 있어 인천지역 어르신들과 지역사회의 노인전문진료시스템으로 최고를 자부하는 이름에 맞는 위상을 지키리라 또 한 번 다짐해 본다.

• 인천 남구 도화1동 432-1 ☎032-865-0033



인하대병원, 국가지정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선정

2월 28일, 인하대병원이 '국가지정 인천지역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로 선정되었다. 향후 신생아 집중치료실 10병상 확충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의 예산 15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에 따라 인하대병원은 기존의 신생아 집중치료실(12병상)에 10병상이 추가되어, 모두 22병상으로 확장 운영될 예정이며, 첨단 미숙아 집중치료실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박승림 의료원장은 "인천의 중심병원인 인하대병원은 지역을 대표하는 첨단 미숙아 집중치료실을 구축하여 특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인하대병원 치과 오남식, 윤정호 교수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임상시험 연구 주주 ●

치과 오남식(사진 왼쪽)·윤정호(사진 오른쪽) 교수팀이 지난 2월 23일 'CAD/CAM (Computer Aided Design/Computer Aided Manufacturing)용 치과 합금의 성능평가 및 임상'에 관한 연구로 '2011 중소기업청 의료기기비교임상 및 성능평가 지원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 이달 초부터 임상 연구를 진행 중인 연구팀은 이번 선정으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앞으로 1년간 1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됐다. 이대목동병원과 공동진행하게 된 이번 임상시험은, CAD/CAM으로 가공이 가능한 귀금속으로 보철물 제작 시 그에 대한 적합도와 편의성, 그리고 가공성 등의 임상평가를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CAD/CAM으로 가공 가능한 치과용 귀금속은 없어 이번 임상시험은, 임플란트 등 다수의 치아와 연관된 보철물 제작에 유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인하대병원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우즈베키스탄 보건의료지원 위한 MOU 체결 ●●

3월 5일, 인하대병원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여의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서 우즈베키스탄의 보건의료 수준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우즈베키스탄 보건의료분야 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과 적극적 사업 수행을 통해 우즈베키스탄 공공 보건분야 수준 향상에 앞장서고자 하며, 우즈베키스탄의 보건의료분야 ODA(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인하대병원 외과 신우영 교수팀, 개원 이후 최초 뇌사자 간 이식수술 성공 ●●●

12월 23일, 인하대병원 외과 신우영 교수팀이 개원 이후 최초로 뇌사자 간 이식에 성공했다. 이번 간 이식수술 성공은 인하대병원 의료진만의 기술로 뇌사자의 간 이식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수술 이후 흔히 발생하는 출혈 증상조차 있지 않은 완벽한 수술이라는 점에서 꽤 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하여 교직원들의 사랑의 성금 전달과 원무팀, 진료지원팀의 각종 행정적 지원뿐 아니라 중구청 등 지역사회기관



과 함께 힘을 모아 각종 지원을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간 이식을 받은 행운의 주인공은 지난해 7월 간암 선고를 받았던 분으로 지난해 5월, B형 간염에 의한 간경변으로 본원 내과에 방문, 7월에 간암이 발견되었다. 간 이식을 받지 않을 경우 기대여명이 1~2개월 미만이라 판단되어 간 이식을 결정하게 되었다. 신우영 교수는 "이번 수술은 합병증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이식 전에 내뱉던 간 및 신장 상태가 거의 다 회복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고 말했다.

인하대병원, 중국 청도 인민병원으로부터 감사패 수상 ●

인하대병원은 중국 청도 인민병원과 함께한 다양한 의료협력과 환자 및 의료진 교류에 기여한 비를 인정받아 인민병원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하게 되었다. 중국 청도 인민병원 내 국제진료 센터는 본원의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전초기지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인하대병원, 공항우편세관과 함께 새해 첫 사랑의 의술 전달 ●●

1월 18일, 인하대병원은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이하 '공항 우편세관')과 함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필요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을 나누었다. 인하대병원과 공항우편세관의 도움으로 혜택을 받은 명공덕(81세) 할머니는 백내장 수술로 밝은 세상을 다시 보게 되었다. 인하대병원은 직원들의 월급에서 1,000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하는 '깎잔 모으기 운동'과 자발적 성금 기부로 본원에서 진료받는 환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를 돕고 있으며, 공항우편세관 또한 전 직원의 급여 중 일부를 자발적으로 모금, 이웃에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인하대병원, 제5기 건강 문화 최고경영자 과정 입학식 실시 ●●●

3월 7일, 인천 하버파크 호텔에서 2012년 3월 7일, 인천 하버파크 호텔에서 '제 5기 건강 문화 최고경영자 과정 입학식'을 실시했다. 56명의 5기 원우들은 건강과 문화를 생각하는 신개념 리더십을 접하고자 본 과정에 입학했으며, 향후 5개월에 걸쳐 국내 및 해외 문화탐방, 건강강좌, 리더십 문화 강좌 등 다채로운 주제로 구성된 유익한 커리큘럼으로 진행된다.



인하대병원, 2012 경영전략 워크숍 개최 [대변화 - 고객에게 집중하자] ●●●●

2월 28일, 영종도 하얏트 호텔에서 2012 경영전략 워크숍을 개최했다. [2012 대변화 - 고객에게 집중하자]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워크숍에서는 향후 인하대병원 운영에 대한 중장기 계획과 비전을 제시하며, 실천과제를 공유하는 시간이 되었다. 박승림 의료원장님은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협동과 소통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암 중심병원을 향한 원내공개강좌 실시 ●●●●●

암 중심병원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2011년부터 암(질환) 지역사회 교육 및 홍보이벤트 확대사업 TFI를 구성하여 대대적인 암 예방과 치료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주요 암에 대상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개강좌를 실시하며, 지난 2월 7일에는 간암의 이해와 치료 관련 외과 신우영 교수님의 강연이 있었고, 9일에는 내분비내과 홍성빈 교수님의 갑상선암의 예방과 치



료에 대한 강연을 진행하였다. 강연과 더불어 암을 극복한 환우들의 수기발표와 암 예방 운동법 등 다양한 내용으로 암에 대한 정보를 전하고 있다.

인하대병원, 환자의 안전과 진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제9회 QI 학술대회] 개최 ●

2월 23일, 3층 대강당에서 제9회 QI 학술대회를 실시했다. 매년 실시되는 QI 학술대회는 환자의 안전과 진료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각 분야 교직원들의 노력으로 빛나고 있다. 구연 부문 최우수상은 'INSTRUMENT 재고관리 시스템을 통한업무개선활동'을 주제로 한 중앙공급실에서 수상하였고, 우수상은 응급의료센터, 집중치료실교육위원회에서 수상하였다. 포스터 부문은 신생아집중치료실, 내과계집중치료실B, 의료정보팀에서 우수상을 CQI부문에서는 진단검사 의학과와 서15병동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인하대병원, 척추외과학의 최신지견 [척추심포지움] 개최 ●●

2월 17일, 인하대병원 3층 대강당에서 척추외과학의 최신지견을 논하기 위한 [척추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움은 국내 척추외과학의 저명한 연자들을 모시고 척추외과의 최신지견과 최근 이슈에 대하여 정리하고 토의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번 행사는 박승림 의료원장이 대한척추외과학회 회장을 역임하며 척추외과학에 기여한 공로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인하대병원 간호부, 역동적 간호활동을 위한 [제8회 임상간호학술대회] 성료 ●●●

2월 2일, 인하대병원 간호부는 '역동적인 간호활동과 책임'을 주제로 제8회 인하대병원 간호부 학술대회를 실시했다. 박금수 제1진료부원장은 "늘 바쁘고, 힘든 근무 여건 속에서도 새로운 업무를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간호사분들이 존경스럽다."라며 "보다 더 역동적인 간호활동으로 본원의 환자 및 보호자분들께 큰 감동을 줄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인하대병원, 경인방송 방문하여 '위암' 건강공개강좌 ●●●●

1월 30일, 인하대병원은 경인방송을 방문, 지역사회 암 예방을 위한 공개강좌를 실시했다. 이번 공개강좌는 소화기내과 권계숙 교수의 '위암의 이해와 예방'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 암 표지자 검사 등 무료검진을 실시하여 경인방송 임직원분들의 건강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인하대병원 - 현대카드-캐피탈과 함께 소아암 환아 대상 아트케어 프로그램 ●●●●●

3월 6일, 인하대병원은 현대카드-캐피탈과 함께 인하대병원 병원학교에서 아트케어 프로그램인 '신나는 교실' 개강식을 실시했다. 본 프로그램은 인하대병원과 현대카드-캐피탈이 예술교육분야 전문성을 보유한 한국예술중등학교 및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와 함께 소아암 환아들을 대상으로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예술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기간 치료로 인한 환아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서적 치유 효과를 도모하기 위한 재능 기부 프로그램이다. 본 프로그램은 인하대병원 소아암 환아들을 대상으로 3월 6일부터 6월 14일까지, 병원학교에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약 80분씩 수업이 진행된다.



인하대병원 소아당뇨병 부모회, 인하푸름이 가족 창립총회 개최 ●

인하대병원이 소아당뇨병 환자의 완치와 건강한 삶을 돕고, 가족들 간에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자조 모임인 '인하푸름이 가족' 을 만들었다. 이날 병원 강당에서 당뇨환아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당뇨환아 가족들에게 통합적 지원이 가능한 '인하푸름이 가족' 창립 총회를 개최했다. 창립 총회에서는 당뇨 뷔페식, 식사 선택 요령, 운동요법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인하푸름이가족 임원 선출이 이뤄졌다. 소아청소년과는 소아당뇨로 진단 및 치료 중인 환아와 가족을 대상으로 소아당뇨와 관계된 질병교육 및 통합지원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인하대병원, 인천해군과 함께 의료 낙후 도서지역 찾아 의료봉사 실시 ●●

인하대병원은 2월 20일 ~ 21일, 이틀에 걸쳐 인천해역방어사령부와 함께 인천 인근에 위치한 의료 낙후 도서인 신도, 시도, 모도 및 장봉도를 직접 방문하여 독거노인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랑의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의사, 간호사 등 전문 의료진으로 구성된 인하대병원 봉사단은 혈압, 당뇨, 심전도 검사 등 주요 건강검진과 의료상담을 진행했으며, 200여 명의 독거노인과 주민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었다.



인하대병원, 'MBN 트로트가 간다' - 태진아, 성진우 콘서트 성료 ●●●

3월 14일, 인하대병원 대강당에서는 화끈한 트로트 한마당이 펼쳐졌다. 이번 공연은 '2012 MBN 희망 프로젝트 - 트로트가 간다'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으며, 트로트의 황제 태진아의 멋진 노래와 '포기하지 마' 로 유명한 성진우의 신나는 멜로디로 인하대병원 환자 및 보호자들의 쾌유를 빌었다. '트로트가 간다' 는 사연이 있는 환자를 선정하여, 쾌유를 기원하고 위문 공연으로 희망을 전하는 프로그램이다.



인하대병원, 인하대학교 공대 교수들의 성악 음악회 실시 ●●●●

1월 19일, 인하대병원 1층 로비에서 인하대 공대 교수들로 구성된 중창단의 성악 음악회가 열렸다. 중창단은 '남촌', '사랑을 위하여', '넬라 핀타지아' 등 명품 음악을 선보이며, 환우들의 쾌유를 빌었으며, 설 연휴를 앞두고 있으면서도 병원에서 투병 중인 환자와 보호자들을 위로했다.



신장내과 김문재 교수, 대외투석접근학회 신임회장에 선출 ●●●●●

2월 19일, 서울아산병원에서 개최된 춘계학술대회에서 인하대병원 신장내과 김문재 교수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김문재 교수는 인하대병원 신장센터 소장과 신장내과 과장을 역임했으며, 대외적으로 대한신장학회 이사, 대한고혈압학회 부회장, 아시아-태평양지역 신장학회 (APON) 학술준비위원장 등을 맡아 능력을 인정받았다. 대한투석접근학회는 신장내과와 혈관의 과를 중심으로 지난 2002년에 창립됐으며, 만성 신부전 환자를 위한 혈액투석 치료에 참여하고 있는 신장내과, 혈관외과, 중재적방사선과, 흉부외과 교수들과 투석전문 개원의, 각 병원 투석간호사가 참여하는 학회로 성장했다.



적정진료지원팀 오선영 과장, 인천광역시 보험심시간호사회 부회장 선출 ●

2월 1일 개최된 인천광역시 보험심시간호사회 총회에서 본원 적정진료지원팀 보험심사파트장 오선영과장이 인천광역시 보험심시간호사회 부회장으로 선출, 2년 임기로 활동하게 되었다.



1004 Day 간호사 봉사활동 사진 및 소감문 공모전, 은상 및 기쁨상 수상 ●●

3월 8일 개최한 제 37회 대한간호협회 병원간호사회 정기총회에서 1004 Day 간호사 봉사활동 사진 및 소감 심사 결과 간호부 암 진료 지원파트 유미애 간호사가 '위로와 공감으로 1004가 되다'라는 제목의 소감문으로 사랑상(은상)을 수상하였고, 사진 부문은 외래간호팀 당노비만센터 유진희 간호사가 간호사와 함께하는 튼튼 스트레칭이라는 사진으로 기쁨상을 수상하였다.



인하대병원 간호부, 대한간호학술상 등 다수 대외수상

3월 14일 허버파크호텔에서 개최된 대한간호협회 인천광역시간호사회 제 17회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인하대병원 함영주 간호단위책임자 외 2인(병원감염관리를 위한 의료진별 표준주의지침 수행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과 이소연 간호단위책임자 외 2인(집중치료실 환자의 섬망 예방을 위한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효과)이 간호학술상을 수상하였고, 서영민 간호단위책임자는 지역사회 교육 활동에 이바지 한 공을 인정받아 공로상을, 김세라 간호사는 모범간호사상을 각각 수상하였다.

이에 앞서 2월 28일 개최된 대한간호협회 정기 대의원총회에서는 '뇌졸중 환자와 배우자를 위한 성재활 중재 프로그램의 효과'를 주제로 송호숙 간호사가 대한간호학술상을 수상하였다.

파랑새 소식

● 파랑새는 인하대병원 유방암 환우회의 이름입니다. ▶ 문의 여성암센터 ☎ 032-890-2560
▶ 홈페이지 www.inha.com ▶ 여성암센터 ▶ 카페 cafe.daum.net / inhaclubred

유방암 공개 강좌 및 파랑새 정기총회

2012년 2월 28일 120여 분의 유방암 환우와 가족들이 모여 유방암 공개 강좌 및 파랑새 총회를 가졌다. 여성암센터 소장인 조영업 교수의 유방암 치료 및 대체요법에 대해 강의가 있었으며 평소 궁금해하던 면역 증강요법, 미술토(겨우살이), 차가버섯, 민들레치료 등에 대해 마음껏 질의하여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이 되었다.



2012년에는 이정화 님이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며 새로운 임원진이 구성되어 회장님을 중심으로 화합하여 활기찬 한 해를 이끌어 갈 것을 다짐하였으며 다양한 행사를 통해 삶의 기쁨을 찾도록 노력할 것을 서로 약속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 다음 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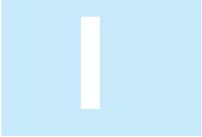
- 4월 आय회
- 5월 체육대회

※ 날짜 및 장소는 여성암센터 홈페이지와 파랑새 카페를 통해 공지 예정

언론에 비친

인하대병원 **음** 醫

2012.1.26



출연: 이연지 교수/가정의학과
프로그램: EBS 라디오
멘토 - 부모
내용: 북부지방 관리법

2012.1.26



출연: 최광성 교수/피부과
프로그램: 인천방송 T-broad
H시 뉴스
내용: 피부건조증의 예방과 치료

2012.1.30



출연: 김형길 교수/소화기내과
프로그램: OBS TV '아침 사랑'
내용: 대장암의 진단과 치료

2012.1.30



출연: 김용성 교수/내분비내과
프로그램: SBS TV
'백세건강스페셜'
내용: 당뇨병의 예방과 치료

2012.2.4



출연: 김청환 교수/재활의학과
프로그램: KBS 1TV
'생로병사의 비밀'
내용: 수족냉증의 새로운 치료법

2012.2.10



출연: 한동엽 전문의/가정의학과
프로그램: 경인방송/남인천방송
뉴스
내용: 독감예방

2012.2.11



출연: 박홍재 소장/
국제치료센터
프로그램: 메디컬 TV
'메디컬 뉴스'
내용: 해외의료관광객 유치 전략

2012.2.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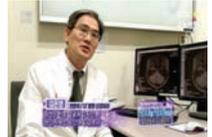
출연: 홍성빈 교수/내분비내과
프로그램: CBS 라디오
'웰빙 다이어리'
내용: 갑상선 암의 올바른 이해

2012.2.18



출연: 윤상민 교수/비뇨기과
프로그램: 경인방송
라디오 종합병원
내용: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과 치료

2012.3.2



출연: 김은영 교수/신경외과
프로그램: MBC TV
'생방송 오늘 아침'
내용: 안면경련증과 뇌갑상술

2012.03.05



출연: 이정밀 교수/소화기내과
프로그램: OBS TV '아침 사랑'
내용: 간암의 예방과 치료

2012.03.08



출연: 한동엽 전문의/
가정의학과
프로그램: T-broad 인천방송
뉴스
내용: 환절기 건강관리

2012.03.08



출연: 전용훈 교수/
소아청소년과
프로그램: 인천시청 인터넷방송
뉴스
내용: 신생아중환자실 지역센터
선정

2012.03.10



출연: 신용운 교수/소화기내과
프로그램: 한국경제TV '간강매
거진9-헬스&이슈'
내용: 위궤양의 예방과 치료

2012.3.18



출연: 임종환 교수/
직업환경의학과
프로그램: jtbc '미각 스캔들'
내용: 식품첨가물의 위험설

친절직원 소개

2월 친절직원

외과 김세중 교수



유방·내분비외과가 전문분야인 김세중 교수는 뛰어난 의술과 더불어 두려움에 떠는 환자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로 희망을 주며 치료에 힘을 보태고 있어, 이에 많은 환자분들의 추천으로 2월

친절직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3월 친절직원

특수간호팀 외과계집중치료실 배은경 간호사



환자나 보호자분들에게 집중치료실은 굉장히 두려운 곳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저도 같은 경험이 있어 더 많이 공감해 드릴수 있어서 이쁨마음까지 보듬어 드릴 수 있었던 점이

저의 친절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편안한 인상도 도움이 되었을 까요(웃음) 저에게 믿음과 신뢰를 보내주시는 환자분들에게 깊은 감사드리고 인하대병원 모든 환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Global INHA

이번호는 충치 환자에게 양치질에 대한 조언을 드리는데, 이 상황에 필요한 영어회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pression

-> I suggest that you brush your teeth and rinse your mouth well.

당신이 양치질을 하고 물로 잘 헹구기를 권합니다.

Episode

DENTIST: Is the pain in a specific tooth?

특별히 아픈 치아가 있습니까?

PATIENT: Yes. This one and this one.

(Patient points to the teeth.)

네, 여기요, 그리고 여기도.

(환자가 그 치아를 가리킨다.)

DENTIST: Oh, that is your maxillary first molar. The other tooth you were pointing to is your maxillary second molar.

Were you in a fight or an accident?

아, 그것은 상악골 첫 번째 어금니입니다. 지적하신 다른 치아는 상악골 두 번째 어금니이군요. 싸우거나 혹은 사고가 있었나요?

PATIENT: No, but it is painful when I eat cold food.

아니요. 하지만 차가운 음식을 먹을 때면 아픉니다.

DENTIST: You have the start of cavities on the teeth that you were pointing to. Do you want to start treatment today?

환자분이 가리키신 치아들에 충치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오늘 치료를 시작할까요?

PATIENT: Yes, I would like to start the treatment.

네 오늘 치료를 하고 싶습니다.

DENTIST: I suggest that you brush your teeth and rinse your mouth well.

당신이 양치질을 하고 물로 잘 헹구기를 권합니다.

★ Global Inha는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병원에서 쓰이는 영어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병원 영어 회화가 있으시면, 원보의 엽서 또는 inhapr@inha.com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인하대학교의료원 발전기금 조성

■ 후원금 사용 용도

- ▶ 세계적 수준의 진료 및 임상의학 연구 지원
- ▶ 인천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지원

■ 참여 방법

- ▶ 현금, 유가증권, 부동산, 기타 현금화 가능한 자산 등 어떠한 형태로도 가능합니다.
- ▶ 온라인 입금, 자동이체, 신용카드, 급여공제 등의 방법으로 일시 혹은 분할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 개인, 단체, 법인 명의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 납입 방법

- ▶ 자동이체 : 거래은행 신청후 발전기금 담당자에게 전화 통보 (☎ 032-890-2604)
- ▶ 무통장 입금 : 하나은행 : 748-910002-39804 (예금주)인하대병원

- ▶ 발전기금으로 기부한 금액은 세제감면을 받을 수 있는 영수증을 보내드립니다.
- ▶ 기부약정서 및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www.inha.com) 참조

◎ 총괄 현황 | 2012년 3월 13일 현재

기부자	약정액	납입총액	비고
311명	1,167,257,798원	933,977,823원	

◎ 기부자 현황 | 2012년 1월 12일 ~ 2012년 3월 13일 현재

일 자	성 명	약 정 액	비 고
12. 1. 12	약제팀	10,000,000	약제팀 직원일동(완납)
12. 1. 31	삼성드림 이비인후과	72,000,000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 의과 동문/ 고국진, 윤석영, 오윤석

알립니다



건강교실 안내

건강교실명	내 용	개최일시	개최장소	문의전화
출산준비 부부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신, 분만에 대한 지식 및 산모체조와 진통시의 적절한 호흡법 교육 - 참가비 7만원 	매주 (토) 오후 2시	3층 회의실	분만실 (032)890-2170
항암제를 맞는 환자 및 보호자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암 화학요법이란 무엇인가? 항암 화학요법의 부작용과 대처방안 항암 화학요법을 받는 환자의 식사요법 	매주 1회 (교육 신청시 안내)	3층 암센터	암센터 (032)890-2580
유방암 환자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방암 환자의 식이 유방암 수술 후 관리 및 임파부종 관리 유방전문의와의 상담 및 환우들과의 대화 - 유방암 환우 및 가족(유선 신청) 	4/12(목), 5/9(수) 오후 2시 ~ 4시	3층 1 세미나실	여성암센터 (032)890-2560
대장암 환자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장암의 이해 대장암 환자의 영양 - 교육을 원하는 경우 사전 신청 바랍니다. 	매월 넷째주 화요일 오후 1시 30분	3층 2 세미나실	암진료상담실 (032)890-3600,3638



원내/원외 공개강좌 안내

전시 일정	제목	강사	장소
2012. 04. 20(금) - 오후 2시	류마티즘	류마티스내과 교수	병원 3층 강당

●문의 : 홍보팀 (☎ 032-890-2608)



전시회 안내

전시 일정	제목	참여 단체 / 작가	장소
2012. 03. 19 ~ 2012. 04. 09	도자기 작품 전시회	창무 오재경 도예가	지하 1층 문화광장
2012. 03. 17 ~ 2012. 04. 14	빛과 색으로 그리다	인천카톨릭대학교 조형예술대학	2층 갤러리
2012. 04. 14 ~ 2012. 04. 28	이은순 개인전	이은순	2층 갤러리
2012. 04. 28 ~ 2012. 05. 12	이귀련 개인전	이귀련	2층 갤러리

●문의 : 홍보팀 (☎ 032-890-2608)



문화행사 안내

전시 일정	제목	참여 작가	장소
2012. 03. 29(목) - 오후 1시	풀립스폴루트앙상블 찾아가는 음악회	풀립스 폴루트 앙상블	1층 로비

●문의 : 홍보팀 (☎ 032-890-2603)

●일정은 참여단체 또는 병원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토요일 오전진료는 가정의학과, 심장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류마티스내과, 정형외과, 비뇨기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정신건강의학과, 치과, 피부과만 가능하오니 기타 진료과의 응급환자는 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과의 사정에 따라 진료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청색** : 클리닉과 일반진료 병행 • **(청색)** : 클리닉만 진료

진료과	교수명	선택진료	세부전공과목	진료요일		비고	진료과	교수명	선택진료	세부전공과목	진료요일		비고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정형외과 (☎2380)	박승림		척추질환, 디스크, 척추측만증, 골다공증		수		이비인후과 (☎2420)	장태영	*	수면무호흡, 비파, 코(성형), 알레르기	수, 목	월	코성형 : 수요일 ▲어지러움클리닉		
	문경호	*	인공관절성형술(고관절, 슬관절), 골다공증, 관절염	화, 목	화			김영모	*	두경부중영(목), 음성언어(편도x)	월, 화, 목				
	김명구	*	스포츠외과(손목, 전완관절염, 인공관절염, 관절염)	월, 수	수			김규성	*	어지럼, 난청, 인공와우이식, 중이염, 편도	월, 수	수(△)			
	강준신	*	슬관절인공관절(슬관절, 고관절)재활, 관절염, 중풍, 골다공증	월, 수	월			최호성	*	수면, 난청, 보청기, 인공와우, 편도	화	수, 목			
	김려선	*	스포츠외과(전완, 슬관절, 주관절, 척추관, 관절염, 관절염)	화, 목	목			임재열	*	두경부중영, 갑상선, 음성장애, 편도	금	화, 금			
	조규정	*	척추질환, 디스크, 척추측만증, 골다공증	월, 금	수			김영호	*	소아이비인후과, 편도, 수면무호흡, 비파	월, 토	월, 금	월요일 : 일반 진료 화요일 : 일반 진료		
	이동주	*	상지, 수부, 중앙, 관절염	목, 금	화			최정석		두경, 소아(비인후), 편, 후두염(성), 편도, 갑상선, 귀질환	화	화, 목			
김범수		족부, 족관절, 외상	수	수, 금		일 반			수, 목, 금, 토	월, 화, 수, 목, 금					
권대규		소아정형, 뇌성마비, 중앙, 외상	화	월, 목											
성형외과 (☎3870)	황 건	*	얼굴외상 및 기형, 선천기형, 미용	화, 목	화, (목)	▶술, 임플란트, 흉부클리닉 *유방재건클리닉 ■비만센터(PS 외래에서 진료)	정신건강의학과 (☎3880)	강민희	*	정신분열병, 우울증, 일중증, 노인성정신장애	수, 금	월, 화	우울증, 불행클리닉 조기정신병클리닉		
	김연수		유방재건, 유방성형, 미용수술, 미세수술, 피부연이제거	월, 수, 금	(월), 수(■)			김철웅	*	난치성 정신분열병, 외상성장애, 불안장애, 조현병	월, 목	수, 목	월, 화, 목, 금	학업중단 위기학생 고위험 ▲치매조기검진클리닉 ▶치매예방센터 ▶치매상담센터	
피부과 (☎2230)	최광성	*	모발, 조갑질환, 여드름, 모발이식, 피부외과, 레이저	월, 화, (목)	금(△), 목	▶모발 및 모발이식클리닉 □ 피부노화클리닉 □ 피부미용클리닉 ▶피부미용성형클리닉 ▶여드름클리닉 ▶피부외과(유방외과)클리닉 *흉터(레이저)클리닉 *소아피부외과(유방외과)클리닉	신경과 (☎3860) 만15세이상 진료가능	하중건	*	운동장애, 퇴행성질환	화, 수	(수), 목	▲운동장애클리닉 ▲뇌졸중클리닉		
	신정현	*	안면피부염, 알러지, 백반증, 두드러기, 피부미용, 레이저	수, (금)	월(화 (수), (금)			나정호	*	뇌혈관질환, 뇌졸중	화, 목	월(목)	▲뇌졸중클리닉		
	송희진		피부암, 피부미용, 외과학, 피부노화	(월), 화, 목	(목), 금			최성혜	*	치매, 기억장애	월 (수), 금	수	▲기억 장애클리닉		
	변지원		노화미용외과, 여드름	수, (금), 수	화, 수	금 오후 : 2번째 진료		박희권	*	뇌졸중, 말초신경, 두통, 어지러움증	월, 수, (금)	금	▲수면클리닉 ▲신경진단클리닉 ▲뇌졸중클리닉		
비뇨기과 (☎2360)	서준규	*	성기능장애, 여성배뇨장애, 불임	월, 수	수		재활의학과 (☎2480)	정한영	*	뇌졸중재활, 소아발달장애, 장애평가, 뇌성마비	월, (금)	수	▲뇌성마비클리닉		
	박원희	*	요실금, 중앙, 전립선질환	화, 금	화			김정환	*	근골격계중증외상, 요실금, 말초신경병변	화, 수	(수), 목	▲중증 신경 재활클리닉		
	윤상민	*	중앙, 결석, 신이식	화, 금	화, 금(3)	금 오후 : 2번째 진료		김영옥	*	척추수술, 언어장애, 발통증, 의식불조기	목, 수	월, 화, (목)	▲언어장애 ▲척추클리닉(1,3주)		
	성도환	*	중앙, 결석, 전립선질환	월, 수	수			일 반			화	월, 화, 수, 목, 금	만15세 이상 진료가능		
	이택	*	소아배뇨, 소아 및 성인배뇨장애, 야뇨증	목	월, 목, 금(1)	금 오후 : 1번째 진료		가정의학과 (☎2240)	최지호		가족건강관리, 금연	월, 화, 목	화, 수, 금	간진센터	
	류지간	*	전립선질환, 요로결석, 비뇨기외상	목	월, 목, 금(2)	금 오후 : 2번째 진료			이연지		항노화영양치료, 생활습관교정, 스트레스	(월), 수, 금	월, 목(△)	▲비만센터	
산부인과 (☎2270)	주관엽		비뇨기종양, 비뇨기검역, 일반비뇨기계질환	목	목		국제진료센터(☎2080)	일 반			월, 화, 수, 목, 금, 토	월, 화, 수, 목, 금, 토	월 수 진료(170~18:00) 1시간 연장 진료		
	이우영	*	부인과종양	화, (금)	(월), (목)	□여성암센터 △비만센터		박홍재		일반내과	월, 화, 목	화, 수, 금	간진센터 ▲비만센터		
	이병익	*	중앙양, 불임·폐경기	수, 목, 금	월			통증치료실 (☎3921)	이두익		통증치료	월, 수	화, 목		
	송은섭	*	부인과종양	월, 화, (수)	(수)				차영덕		연구년 : 12. 3. 1~				
	황성욱	*	중앙양, 복강경	(월), (목), 금	화			영상의학과 (☎2740)	김원홍		HIFU 초음파 치료	월, 수	월, 화, 수, 목		
박정우	*	부인과종양	월, 화, 목	화		조순구	*		중재적 방사선학	월, 수, 목	월, 수, 목				
여 산부인과 OB-GYN	외과	조영업	*	유방, 내분비외과	월, 화, 목		방사선종양학과 (☎3070)	김우철	*	소화기, 폐암, 뇌암, 두경부암, 혈액암, 유방암	(월), 화, 목, 금	월 (화), 목	*사이버비센터 치료용 현대 시제 2주		
		김세중	*	유방, 내분비외과	수, 금	월		김현정	*	유방암, 비뇨기과암, 두경부암, 부인암	월, 수, 목	(월), 수, 목, 금			
	성형외과	김연수		유방재건	(월), (목)	*	김우철	*	소화기, 폐암, 뇌암, 두경부암, 혈액암, 유방암	(월), 화, 목, 금	월 (화), 목				
	영상의학과	김윤정		유방방사선학	(수), (목)	■맘모토미술	김현정	*	유방암, 비뇨기과암, 두경부암, 부인암	월, 수, 목	(월), 수, 목, 금				
정신건강의학과	최혜진		불안장애	(화), (목), 금	□중앙스트레스클리닉	일 반			금	금					
소아청소년과 (☎2260)	내분비내과	홍성빈		갑상선 검사	(화)	▲갑상선초음파검사	사이버 나이프 중양학과 센터 신경외과 (☎3076)	김우철	*	소화기, 폐암, 뇌암, 두경부암, 혈액암, 유방암	월	화			
		손병관		알레르기, 호흡기, 면역질환	월	목		만15세까지 소아과진료	김현정	*	유방암, 비뇨기과암, 두경부암, 부인암	월, 목	월, 목		
		홍영진	*	심장, 감염	수, 목	월		□비만센터	박현선	*	뇌종양, 뇌혈관기형	화	목		
		김순기	*	혈액, 중앙, 내분비, 비만, 성장	수, 금(3)	월, 화			윤순환	*	척추, 척수, 원발성종양	금	금		
		전우훈	*	신생아, 미숙아, 발달	목, 금	화, 수			핵의학과(☎3160)	현인영	*	동위원소치료	월, 화, 목	월, 화, 목	
		임대현	*	알레르기, 호흡기, 면역, 결체조직	화, 금	월, 수				직업환경의학과 (☎2861)	임종한		환경성질환, 화학물질관리, 직업성호흡기질환, 고압	월, 화, 목	화, 목
		김정희	*	알레르기, 호흡기, 면역, 결체조직	월, 화	수, 목			박신구			직업관련 근골격계질환, 시업장 보건관리	월, 금	월, 금	
		권영세	*	신경, 뇌전증(간질), 두통	월, 화	목, 금			김한철		뇌, 생활환경에 의한, 업무환경평가, 업무관련성평가	월, 수	수		
		이지은	*	사춘기숙성, 저성장, 갑상선, 내분비질환, 신경질환	수, 목	화, (목), 금		목 오후 : 비만센터진료 14:00~16:00	김일규	*	구강악안면외과, 임플란트, 매시	월, 화, 수(△), 금	화, 목		
		김동현		감염	월, 화, 금	월, 화, 금			오남식	*	보철과, 임플란트보철, 심미보철	월, 목, 금	월(△), 화, 금	▲임플란트클리닉	
일 반			월, 수, 목, 금	월, 목, 금		윤정호	*	치주과	월, 목(△), 금	월, 화, 목					
안과 (☎2400)	안과	오중현	*	백내장, 녹내장	월, 목, 금	화	▲항공기생물원진료클리닉	박찬운		보철과	토	토			
		문연성	*	망막, 유리체, 포도막	화, 금	수, 목		손성정		보존과	화, 목	월, 화, 수, 목, 금			
		진희숙	*	망막, 유리체, 백내장	수	월, 금		박선형		교정과	월, 수, 목, 금	월, 수, 목, 금			
		강성모	*	안성형, 사시	월, 수	목		일 반			월, 수, 목, 금, 토	월, 화, 수(△), 목, 금			
안과	안과	김나래		녹내장, 백내장	화, 금	월		응급의학과(☎2301)	일 반	응급의학, 약물중독	월, 목	월, 목			
		일 반			월, 수, 목, 토	화, 수, 목, 금									
안과레이저(☎2400)	EYAL		레이저 클리닉	금	수, 목, 금										

최첨단 암 치료기의 새로운 혁명! RapidArc & Cyberknife

RapidArc
Cyberknife



보다 빠르고 정확한 최신기술 방사선 치료장비 래피드아크

래피드아크는 21세기적 치료라고 각광받는 세기조절방사선 치료(IMRT)와 영상유도방사선 치료(IGRT)가 기본적으로 통합되어 있고 여기에 2007년 개발된 보다 발전된 형태의 새로운 치료기술인 종양의 모양에 따른 맞춤형 회전치료를 수행할 수 있는 방사선 치료 장비입니다.

최첨단 기술의 융합으로 탄생된 현존 최고의 암 치료기 | 무통·무혈 | '로봇 사이버나이프'

실시간 종양추적 4차원 로봇 사이버나이프는 신체 장기 움직임을 추적하는 시스템, 척추 암 자동 추적 시스템을 갖춘, 기존의 4세대 사이버나이프보다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된 4차원 사이버나이프로 실시간 영상 유도 기술, NASA의 우주 항법 기술, 컴퓨터, 로봇 팔 등의 최첨단 기술이 융합되어 신체 어느 부위라도 안전하게 방사선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인하대병원
www.inha.com

IGRT센터 / 사이버나이프센터 032)890-3076

방사선종양학과 032)890-3070 신경외과 032)890-2370